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48호 【루계 제25657호】 주체106(2017)년 5월 28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조직한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시험사격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조직한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시험사격을 보시였다.

황병서동지, 리영길동지, 오금철동지, 김광혁동지, 리병철동지, 김정식동지, 정승일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장창하동지, 전일호동지를 비롯한 국방과학원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의 기치따라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에서 더 큰 기적을 안아오며 만리마의 속도로 힘차게 전진하는 국방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당의 군사전략사상에 맞게 작전배치된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전투적성능과 믿음성을 검증하고 보다 현대화, 정밀화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시험사격을 또다시 진행하였다.

시험사격은 불의에 우리 국가의 령공을 침범하는 적공중목표들을 타격소멸하는것으로 가상하여 정황을 조성하고 임의의 방향에서 날아오는 각이한 공중목표들을 탐지 및 요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시험사격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각이한 고도와 속도로 래습하는 적공중목표들로 가상한 무인기와 로케트표적들이 출현하자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번개같은 불줄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연방 날아가 목표들을 단방에 박산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성공적인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시험사격을 보시면서 저렇게 완성된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를 보니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저 무기체계는 개발의 첫 자욱부터 장군님께서 하나하나 품들여 이끌어오시던 유복자무기체계이라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국가반항공방어능력의 강화를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완전성공의 오늘을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과 국방과학원 일군들에게 지난해보다 요격유도무기체계의 목표발견 및 추반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명중정확도도 높아졌다고, 지난해에 나타났던 일련의 결함들도 완벽하게 극복되였다고, 합격으로 평가한다고, 작전능력이 철저히 검토된 저 무기체계를 팡팡 생산해내여 온 나라에 숲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공중우세론, 무기만능론을 제창하는 적들의 제공권망상을 완전히 제압분쇄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 어떤 적공중비적들도 신성한 우리의 령공을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국가반항공방어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자면 다음세대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도 시급히 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식의 현대적인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발전전략과 관련한 강령적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본때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돌격 앞으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경쟁열풍이 안아온 자랑찬 성과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고경찬영웅소대의 뒤를 이어 년간계획을 완수한 소대들 련이어 배출, 모든 소대들이 올해 생산실적을 종전의 1.5~2배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 궐기, 인민경제 중요부문에서 수많은 작업반들이 년간, 상반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4월 21일 고경찬영웅소대에 보내주신 력사적인 축하전문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온 나라의 일터마다에 만리마시대 선구자작업반, 선구자집단의 영예를 지니기 위한 사회주의경쟁, 집단적혁신운동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주었다.

뜻깊은 축하전문발표일을 계기로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은 더한층 고조를 이루었으며 모든 소대, 작업반들에서 고경찬영웅소대의 모범을 따라 올해의 생산기록을 종전의 1.5~2배로 끌어올리기 위한 증산돌격전이 맹렬히 전개되고있다.

지난 5월 19일, 금골광산 영광갱의 유명한 박태선영웅소대가 년간인민경제계획완수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렸다. 같은 날 갱진설사업소 1건설갱 김철민굴착소대에서도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다.

이들의 뒤를 따라 7.1갱 한흥록운광소대에서 년간계획완수의 개가를 올릴 시각을 가까이하고있으며 금골광산의 안정민제광소대, 김용일제광소대와 검덕갱 박호철채준소대도 만만치 않은 기세로 증산돌격전에 매진하고있다.

단천지구의 광산들을 비롯한 채취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 등 인민경제의 중요단위들에서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지니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속에 수많은 작업반들이 년간, 상반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축하전문까지 보내주신 검덕의 광부소대의 투쟁성과에 온 나라가 새 기록, 새 기준창조의 경쟁열풍, 집단적혁신운동의 불길로 화답하여 이룩하고있는 혁혁한 성과들은 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낳는가를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검덕땅에서 만리마시대에 특기할 력사적인 축하전문전달모임이 있은 때로부터 한달키간에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만리마시대를 빛내이는 선구자집단들이 련속 배출되고있는 이 현실은 우리 혁명의 년대기마다 자랑찬 증산과로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받들어온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충정의 진통의 발현이며 백도자의 하늘같은 믿음에 결사관철의 실천으로 보답하려는 그들의 열렬한 충정심과 지력자강의 투쟁기풍, 집단주의정신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일편단심 백옥같은 충정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위대한 인민의 정신력을 믿고있으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습니다.》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지니기 위한 사회주의경쟁, 집단적혁신운동의 열풍은 만리마시대의 첫 선구자작업반이 태여난 검덕땅에서부터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고경찬영웅소대의 년간계획완수를 혁혁한 전과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신화로 분에 넘치게 평가해주시면서 축하전문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검덕의 로동계급모두에게 안겨주신 믿음과 기대로 누구나 심장깊이 새기고 어디서나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나서도록 철임식정치사상공세를 드세게 벌려나갔다.

당위원회의 치밀한 조직사업에 따라 고경찬영웅소대의 성과와 경험을 따라배우기 위한 실효모임들이 련합기업소의 부문, 단위별로 심속있게 진행되였으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전투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 위한 토의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졌다. 련합기업소의 모든 소대, 작업반들에서는 고경찬영웅소대의 모범을 따라 뜻깊은 올해에 생산실적을 종전의 1.5~2배이상으로 끌어올릴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고 증산돌격전에 과감히 돌입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력사적인 축하전문에서 고경찬영웅소대 전투원동지들은 순간도 멈춤없이 더욱 분발하여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나아가며 금골광산의 모든 갱들과 소대들에서는 영웅소대의 경험을 따라배워 보다 큰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검덕로동계급의 충정의 전통을 빛내여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영웅소대가 제속혁신의 선봉에서 내달리며 광물생산의 주요전구인 금골광산에서부터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 힘을 넣었다.

만리마시대의 첫 선구자작업반으로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고경찬영웅소대에서는 당의 하늘같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종전 기록을 뛰어넘어 3년분 계획을 수행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5월에 들어와서만도 단 열흘동안에 한달분 광석을 생산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고경찬영웅소대의 모범을 따라배우자는 선전선동의 집중포화가 순간도 멈춤없이 검덕골안을 떠들썩하게 들었다놓고있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이 생산의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금골광산 채광소대들을 비롯한 생산단위들에 내려가 광부들의 혁명열, 투쟁열, 경쟁열을 최대로 폭발시키고있다. 일군들부터가 당과 조국이 오늘의 만리마시대에 검덕에서 올려나오는 증산의 포성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다시금 뼈에 새기고 지력자강의 투쟁정신으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기어이 높은 증산목표를 달성할 비상한 각오로 떨쳐나섰다.

련합기업소적으로 기본전투단위인 소대, 작업반들의 증산투쟁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다발적이며 련발적인 생산성과들이 이룩되기 시작하였다.

승리의 포성은 금골광산 영광갱 박태선영웅소대에서 먼저 울려나왔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첫 로동자공화국영웅을 배출한 영광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는 박태선영웅소대원들은 동지들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영웅의 넋을 숭고한 집단주의정신으로 빛내여가며 년초부터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치렬한 돌격전을 벌려왔다.

그들은 만리마선구자대회소집과 관련한 당중앙위원회 결정에 접하고 비상한 열의를 발휘하여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1.4분기 계획완수의 포성을 울리였다. 3월에 들어와 광석품위가 대단히 높지만 조건이 불리하여 누구도 선뜻 맡아나서기 지어하는 94호채굴장을 자진하여 타고앉은 박태선영웅소대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난관을 박차고 과감하게 돌진해나갔다.

소대장 우승환동무는 암질특성에 맞게 천공때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적은 구멍을 뚫고도 많은 광석을 현굴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힘을 넣는 한편 막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소대의 증산투쟁을 헌신적으로 지휘하였다.

뜻깊은 태양절을 앞둔 4월초에 상반년계획을 완수한 소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고경찬영웅소대에 보내주신 축하전문에 접하고 올해에 2년 6개월분 계획을 수행할 목표를 새롭게 내걸었다.

지심 700m 길이에 채굴장을 하나 더 전개하는 동시에 4개의 채굴장을 타고앉은 소대들로부터 만경창파를 헤쳐가는 어로작업반들, 심심산골의 청년작업반들과 전기로작업반, 기관차승무조 등 모든 작업반단위들에서 《고경찬영웅소대와 우리 작업반》, 《고경찬영웅소대장과 나》라는 랑심의 불음을 안고 실효모임들이 활발히 벌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축하전문을 자신들에 대한 고무격려로 받아들이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사회주의경쟁, 집단적혁신운동에 총매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도처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년간계획, 상반년 계획을 완수한 작업반들이 련속 배출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전문을 남다른 격정속에 받아안은 단천지구광업총국아래 모든 생산단위의 작업반들에서 사회주의경쟁, 집단적혁신열풍을 세차게 지펴올린 결과 5월 22일현재 총국적으로 130여개에 달하는 작업반들과 6개의 광, 직장들에서 상반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특히 룡천광산 청년갱 채광9소대원들은 고경찬영웅소대를 따라배워 만리마시대의 선구자작업반의 영예를 지닐 만만한 투지에 넘쳐 한사람같이 분발하여 5월 11일에 년간계획완수의 포성을 힘있게 울렸으며 지금 2년분 계획수행의 고지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하고있다. 성진내화물공장 정소비료직장의 로동자들도 새 기준, 새 기록의 창조자가 될 열의에 넘쳐 증산하고 또 증산하여 지난 4월말까지 직장앞에 맡겨진 시비년도비료생산과제를 빛나게 결속하였다.

고경찬영웅소대의 자랑찬 투쟁전과는 채취공업부문 로동계급속에서 날이 갈수록 불같은 경쟁심을 북돋아주고있다.

석탄공업부문의 20여개 청년돌격대들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려 년간,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혁혁한 위훈을 창조하였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김혁청년돌격대와 송남청년탄광의 김진청년돌격대에서는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전과에 무한히 고무되여 비약의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5월 18일까지 년간굴진계획을 결속하였다. 고원탄광 김혁청년돌격대에서도 청년절까지 내세웠던 년간계획수행날자를 전승절까지 앞당김것을 결의하고 줄기찬 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순천과 덕천 등 금지의 탄전들에서 미더운 청년돌격대원들은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답게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속에 능률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이면서 굴진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고있다.

나라의 금지의 철광석생산기지인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4월말까지 10여개의 작업반이 상반년 계획을 완수한것을 비롯하여 은률광산, 제령광산의 생산작업반들에서도 높이 세운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며 전진속도를 부단히 높이고있다.

기적창조의 만리마는 인민경제선행관을 지켜선 철도운수부문에서도 나래쳐오르고있다. 철도성에서 지난 3월 중순까지 37명의 상반년 계획완수자를 배출한 기관차대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며 고경찬영웅소대를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모든 역, 대, 소들에서 만리마시대의 선구자작업반을 배출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고조시킨 결과 5월 22일현재 성적으로 30개의 역들과 20여명의 기관사들이 맡겨진 년간계획을 빛나게 결속하였다.

림업부문에서도 4월말까지 14개의 사업소와 100여개의 작업소들이 년간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끝낸 기세로 고경찬영웅소대처럼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증산돌격전의 불길을 날을 따라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사리원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을 비롯한 방직, 비단공업부문에서 수많은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만리마선구자대회전으로 2년분, 3년분 계획수행고지를 점령할 목표를 내걸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지하막장에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검덕의 한 광부소대의 생산성과를 만리마시대의 신화로 값높이 내세워주고 그들의 투쟁정신과 일본새를 온 나라 작업반들이 따라배워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고무추동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이렇듯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강선의 진응원작업반에서부터 타오른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봉화가 삼시에 전국에 료원의 불길로 타번지던 그때처럼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선구자작업반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높이 울리는 장쾌한 승전포성으로 이 땅에 기적과 변혁의 새로운 서사시가 수놓아질 위대한 력사적시기의 도래는 결코 멀지 않았다.

우리의 국방과학전사들이 당의 전략적핵강국건설구상을 사생결단의 신념으로 받들며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영웅적대진군을 선군의 핵보검으로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고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자력자강의 증산포성으로 당의 경제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고있기에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횡포무도한 초강경위협과 야만적인 제재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며 주체조선의 만리마대진군은 반드시 위대한 승리로 결속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철옥

세차게 타번지는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

330여개 단위들이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를 수여받았다

얼마전 조선과학기술총련맹중앙위원회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현대화, 정보화하고 설비,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서 성과를 이룩한 30여개 단위들에 3중모범기술혁신단위, 2중모범기술혁신단위,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를 수여하였다.

하여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30여개 단위들이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를 수여받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기술혁명수행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힘있게 벌어진 모범기술혁신공장(직장, 작업반)칭호쟁취운동을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높은 단계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모든 부문을 과학화하여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강국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일터마다에서 과학기술열풍,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과 경영활동에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단위의 과학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였으며 그 과정에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면서도 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선흥식료공장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탄산음료와 에스키모를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의 무인화, 무균화를 실현하였으며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정보화, 과학화함으로써 이번에 3중모범기술혁신단위의 영예를 지니였다.

2중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를 수여받은 평양양말공장 녀자양말직장에서는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시키고 생산자대중을 기술혁명수행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열처리공정에 먼저외선복사체를 도입하고 11종에 50여개의 부속품을 국산화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였다.

이밖에도 덕천고려약공장과 강원도정보통신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우리 당이 제시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폭풍치며 전진하는 내 조국의 거세찬 숨결을 더해줄것이다.

정영철

박봉주총리

연안군의 농사실태 료해

【평양 5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박봉주내각총리는 황해남도 연안군의 농사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일념밑에 군안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모내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총리는 연안군 읍협동농장, 부흥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로력과 농기계들의 가동실태와 모내기실적을 료해하고 당면한 영농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이어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들을 배치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알곡소출을 높일데 대하여서와 련관단위들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자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이에 앞서 총리는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와 연탄채염소를 돌아보면서 단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며 인민군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모내기성과 계속 확대

황해남도에서

황남땅이 모내기전투로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인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하여 한시람같이 떨쳐나선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이 모내기전투를 본때있게 벌려 날마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모내기전투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불� 협동벌들에 나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일군들과 대중을 모내기전투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예술단, 도예술선전대를 비롯한 강력한 선전선동력량을 협동벌들에 내보내여 혁명의 북소리, 진격의 나팔소리가 세차게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선동원, 직외강연강사, 5호담당선전원들의 역할을 높여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들이대고있다. 도적으로 수많은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들이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속에 들어가 함께 일하면서 모내기전투에서 위훈을 창조하도록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있다. 도안의 협동벌들에서는 백수십대의 방송선전차, 수천대의 로전방송기재들이 동원되여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은 한개 단위씩 맡고나가 일정계획대로 모내기전투를 다그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해기있게 해나가고있다.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안고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안악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지난 26일까지 50%이상 돌파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올해 모내기를 군자체의 힘으로 끝낼 결사의 의지를 안고 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면서 이신작칙의 산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가고있다. 일군들은 모내기일정계획을 포전별로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고있다. 협동농장들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속에 안악농장과 오국, 경지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이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마지막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재령군의 협동농장들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삼지강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에도 알곡생산에서 통장훈을 무를 신심드높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모내기실적을 부쩍 끌어올리고있다.

김제원, 북지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50%이상의 논면적에 모내기를 진행한 기세로 계속 힘찬 전투를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청단군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지난 24일까지 심평농장이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완전히 끝내였다. 그뒤를 이어 읍협동농장 제2작업반, 화양협동농장 제7작업반이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내였으며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힘찬 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속에 군적인 모내기실적은 날이 갈수록 계속 뛰어오르고있다.

연안군, 옹진군, 태탄군에서 가물이 지속되는데 맞게 양수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물보장을 앞세우면서 모내기전투를 일정계획대로 내밀고있다.

연안군의 일군들은 양수기수리와 정비에 필요한 많은 량의 설비와 자재를 보장해주어 모내기를 일정계획대로 다그치게 하고있다.

옹진군의 일군들은 협동농장들에 나가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리면서 뜨락또르부속품과 소농기구 등을 해결해주어 모내기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태탄군의 일군들은 양수설비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보장해주어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수백정보에 해당한 논들에 물을 정상적으로 댈수 있게 하였다.

배천군과 신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풍요한 가을은 모판에서부터 시작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모판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여 실한 모를 내고있다.

도안의 지원자들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립장에서 모내기전투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모내기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여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협동벌들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 모내기성과는 날이 갈수록 계속 확대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철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관철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기마수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선차이다

상원군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현시기 어느 당조직이나 과학기술로 당정책관철의 지름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상원군당위원회가 이 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방법에서 무엇이 좋은가.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선차적힘을 넣은것이다.

만리마시대 기마수들인 일군들의 심장에 먼저 불을 밝아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앞세워나간 이곳 군당위원회 사업은 두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새것을 창조하며 호소하자

지식경제시대에는 말로만 침탄을 돌파하자고 해서는 통하지 않는다. 피타는 사색과 노력으로 새것을 창조하면서 호소해야 인재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당사업실천을 통해 이런 교훈을 얻은 군당위원장 리은옥동무는 일군들 누구나 실력전에 뛰여들어 앞채를 메도록 하는것을 당사업의 중요한 고리로 간주하였다. 그는 군의 행정경제일군들과 무엇을 하나 새롭게 작전하고 추진해도 자기의 창조적슬결이 뚜렷이 맥박치는 창조물을 내놓기 위하여 애썼다.

얼마전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에서 참가자들의 찬사를 받은 일군이 있었다. 이곳 군의 남새온실농장 지배인 박호남동무였다.

남새보관기지와 남새가공기지까지 밀접히 결합시켜 실리가 최대로 나게 건설한 온실남새생산기지는 모두의 관심을 끌었다.

그날 지배인이 참가자들에게 진정을 토로하였듯이 남새생산과 보관, 가공이 일체화된 이 창조물에는 창조의 세계에로 다심히 이끌어준 군당위원회의 손길이 어려있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비록 힘에 부치더라도 지배인이 남새보관, 가공기지들을 짧은 기간에 새로 꾸리는것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기어이 해쳐나가야 할 강행군로정으로 정하고 힘찬 투쟁을 벌리도록 걸음걸음 힘과 지혜를 안겨주었다. 부위원장 리일만동무를 비롯한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불붙는 현장에서 수십차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농장일군들이 창조의 자욱을 힘있게 내딛도록 하였다. 풀기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로 진통을 겪을 때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해당 단위 일군들, 연구사들과의 련계를 주동적으로 지어주어 마침내 성공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였다.

군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새로운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과정에 농장의 일군들은 실력전의 명수로 자라나게 되였다.

남새온실농장 일군들만이 아니였다.

군의 파수기계공장에 가면 기술자, 기능공들과 힘을 합쳐 자체의 힘으로 벼겨카스화에 의한 발동발전기를 제작하도록 떠밀어준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상원군민발전소에 가면 군당책임일군이 미리 문헌조사를 구체적으로 한데 기초하여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열의를 남김없이 발동하며 가성소다생산공정을 훌륭히 꾸리도록 방향과 방도를 제우쳐준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일군들의 이런 선구자적모범은 렌주먹을 휘두르면서 기술혁신에서 실적을 내자고 대중에게 호소하던 일군들에게 말없이 자극을 주었다.

일군들이 떨쳐나선 가운데 군농기계작업소를 비롯한 단위들에서 놀라운 기술혁신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새것을 창조하며 일군들이 하는 호소는 몇백배의 실효를 낳아 온 군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한것이였다.

과학기술보급기지리용의 첫자리에 세워

단위들에 꾸린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은 현대과학기술을 더 많이 습득하여 미래에로 질풍같이 내달리기 위한 통마이다.

하다면 그것이 온을 내게 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여기서도 군당위원회는 단위 일군들이 앞장에 서는 문제를 중시했다.

언제인가 한 단위를 찾은 군당위원장은 아픈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몸들여 꾸린 과학기술보급기지리용률이 기대했던 높이에 이르지 못한것이였다.

특히 일군들이 앞장서지 못하고있는 실태가 많은것을 생각하게 했다.

즉시 해당 부서 일군들을 통해 전반실태를 알아본 그는 보급기지를 꾸릴 때 못지 않게 리용문제에 당적인 관심을 크게 돌려야 하겠다고 다시금 절실하였다.

우선 자신부터가 과학기술보급기지리용에서 앞장에 서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군미래원에 자주 찾아가 리용정형이며 운영에서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는 한편 농사를 비롯한 군의 전반사업을 추켜세우는데 절실한 과학기술자료들을 깊이 파고들기 위하여 피타게 노력하였다.

군당일군들을 대상하여서는 물론이고 군안의 당, 행정일군들의 모임때에도 알곡 정보당수학교를 훨씬 높일수 있는 선진영농기술을 비롯하여 임의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의 인식정형을 문답의 방법으로 알아보면서 배워주고 또 배웠다.

군안의 공장, 기업소, 농장일군들이 과학기술보급기지를 실지 얼마나 실속있게 리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주에 1차씩 정상적으로 총화하면서 우결함을 지적해주어 형식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군미래원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중요한 새 기술통보강의 등이 국가망을 통해 예견될 때에는 해당 일군들이 시간을 뚝 떼여 원격강의실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 조직부 부원 김금희동무를 비롯하여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여 열심히 배우는 일군들의 대렬도 늘어났다.

과학기술보급기지를 통하여 실력을 쌓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면 일군구실을 바로할수 없으며 시대의 장애물이 될수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일군들은 스스로 이 사업의 앞장에 서게 되였다.

향학열에 불타는 일군들의 모습은 그대로 대중을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관철에로 추동하는 산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배움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영농사업은 물론 군의 전반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과학기술로 당정책관철의 지름길을 믿음직하게 열어나가는 이곳 군당위원회의 사업은 따라배울 가치가 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실력이 있어야 앞채를 메수 있다

천성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당일군들이 과학기술실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생각이 앞서도 인재와의 사업을 할수 없고 자기 단위의 과학기술사업을 주도해나갈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이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경제를 지도할수 없고 발언권도 설수 없습니다.》

천성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위해하면서 우리는 초급당위원장 리정길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였다. 그들의 말을 귀여짜면 초급당위원장이 다방면적인 실력의 소유자라는것이였다.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고심어린 사색과 진지한 탐구, 피타는 노력의 결과였다.

그가 탄광초급당위원장으로 갓 임명되여왔을 때였다.

전기공학전문가이고 10여년간 탄광부문에서 당사업을 해왔다고 하지만 규모가 큰 탄광을 당의 의도에 맞게 이끌어나가자면 채굴, 자동화, 화학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했다. 생산만이 아니였다. 건설부문과 후방부문을 추켜세우자고 해도 설계, 시공, 농산, 축산부문에 박식해야 했다.

하기에 그는 다른 탄광에서 당일군으로 사업할 때부터 막히는데가 없는 실력가로 인정을 받았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간판이나 공로만으로는 앞채를 멜수 없다. 이것을 누구보다 절감한 그였기에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과학기술실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사실 탄광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일감을 안고있는 그에게서 제일 부족한것은 시간이였다. 그는 실력을 높이는 문제를 당일군의 자격문제로, 탄광의 운명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시간을 쪼개가며 과학기술실력을 높이기 위한 전투를 벌리였다. 탄광에 나오는 과학기술서적과 새 기술자료들을 제일먼저 보는 첫 독자가 되였다. 또한 현장로동자들속에 들어가 허심하게 배우는 기풍을 확립하였다. 이 과정에 기술자들에게 착상도 뒹겨주며 기술혁신을 주도해나가는 정도에 이르게 되였다.

그의 실력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해 만수대예술극장 분수공원옆을 지나던 그의 눈길은 쉬임없이 솟구치는 분수에 가맺혔다.

그에게는 피뜩 분수의 원리를 리용하여 물안개발생기를 제작하여 막장에 도입하면 미세한 먼지도 잠을수 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출장길에서 돌아오는 즉시 천성석탄공업대학 교원들을 만났다.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의 연구사도 초청해왔다.

초급당일군이 내놓은 착상은 가치있는것으로 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탄광기술발전파장을 비롯한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합세하였다. 6개월후에는 물안개발생기를 제작하여 탄광의 굴진막장들에 받아들이게 되였다.

결과는 좋았다. 로동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였다. 굴진 순환당 속도가 1, 2배나 높아졌다. 초급당일군의 실천적모범이 기술자들에게 준 충격은 컸다. 이미 터득한 지식에 만족해서는 안되며 실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는 자각을 다시금 가지게 하였다.

당일군이 실력전의 기발을 들고나가니 대중의 창조적지혜가 남김없이 발양되고 석탄생산에서 걸리고있던 기술적문제들이 쭉쭉 풀려나갔다.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탄광의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수십건의 새 기술과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한 사실과 탄광에 과학기술혁신상증서가 수여된것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대중은 무슨 일이 제기되면 요란한 언사를 쓰며 호소하는 당일군보다 《내가 하겠소.》라고 하며 한몸을 내대는 당일군, 기술자들과 걸린 문제를 놓고 함께 방도를 모색하고 창조의 발판을 마련해주며 과학기술사업을 주도해나가는 당일군을 더욱 따른다. 실력의 높이이자 송풍의 위력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송풍기가 되여

단천청년기관차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중요한 고리이며 여기에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

기술혁신열풍을 일으키는데서 당조직들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단천청년기관차대 초급당위원회 사업이 이에 대답을 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생산단위와 과학연구기관들사이의 협동을 강화하며 기업체들에서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확대와 경영관리개선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로 경제발전을 추동하여야 합니다.》

기관차대의 기술발전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던 몇해전 어느날 정비중에 있는 《붉은기》1호의 승무원들과 일손을 같이한 초급당일군은 무사고운행을 위한 기술혁신문제를 화제에 올렸다. 속도계현대화를 비롯하여 좋은 발기가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발기자가 실천은 자기와 동떨어진 일로 생각하는것이였다.

이를 놓고 초급당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았다. 기술자들과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어 성과가 이룩되는데 만족하고있었던것이다. 기술혁신은 몇몇 특정한 기술자들만 하는것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뿌리빼야 대중을 기술혁신의 주인으로 만들수 있다는것을 초급당일군은 절감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발기자들 속도계현대화를 위한 기술혁신조에 대담하게 망라시키도록 하고 성공에로 떠밀어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종업원 누구라없이 자기도 새 기술을 창조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기술혁신에 광범한 군중을 적극 인입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밀고나갔다.

우선 기술발전계획작성단계에서의 군중토의를 중시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때해 기술발전계획작성을 위한 부서별군중토의를 계기로 종업원들에 대한 집중정치사업을 들이댔다. 당, 행정, 기술일군들이 단위들에 내려가 기관차대가 해결해야 할 기술적문제들을 알려주면서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

실속있는 정치사업의 결과는 좋았다. 적지 않은 종업원들이 새로운 작업방법과 설비개조안을 내놓았다. 해마다 수십건의 기술혁신안이 제기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군중의 발기를 기술일군들과의 합의밑에 기술발전계획으로 결정하였으며 중점과제들은 초급당위원들에게 분담하여 적극 밀어주도록 하였다.

실속있는 총화와 평가사업, 이것 역시 대중적기술혁신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기술혁신과제가 완성될 때마다 전체 종업원들앞에서 전시회 및 시운전을 진행하고 내세워주는 사업을 당적으로 내밀었다.

이런 실례가 있다. 지난해 수리중대 소수리소대 수리공이 기관차판용수료체작업에 나사자끼식울림지구를 도입하여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헐하게 일할 기발한 착상을 하였을 때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그가 짧은 기간에 기술혁신과제를 완성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전체 종업원들이 모인 기회에 보여주기를 하고 평가해주었다. 후날 그를 소대장으로 내세워주었다.

이뿐이 아니다. 기술혁신에서 모범적인 종업원들을 중요한 정치행사들에 참가시켜 최상의 영광을 받아안게 하였다. 전도양양한 창안자들은 4.15기술혁신돌격대에 망라시켜 기관차대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인재들로 키워나갔다.

초급당위원회의 이러한 주도적인 역할은 종업원들의 기술혁신열의를 비상히 높여주었다. 현장로동자들의 창안건수가 해마다 늘어났다.

기술력량에서의 변화는 크게 없었지만 지난해에만도 수십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많은 대중을 기술혁신의 주인, 새 기술의 창조자로 키우는 당조직의 주도적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사기자 김향란

인재육성에 품을 들인것만큼

문천시식료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문천시식료공장에서는 모든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갱신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이 자랑찬 성과가 한두명의 기술인재가 아닌 공장의 수십명의 로동자창의고안명수들에 의해 이루어진것이라는 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재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공장의 생산실태는 시원치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오래된 생산설비들의 능력에서 찾았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였다.

하지만 그 주장을 부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은 어느 한 기계설비가 뜻밖에 멎어서게 되였을 때였다. 고장원인을 애써 찾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로동자들의 전반적인 기술기능수준이 낮은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고장원인을 정확히 판별하고 결론을 내릴만 한 기술자가 없었던것이다.

오랜 신고끝에 겨우 원인을 찾아 퇴치하기는 하였지만 그만큼 시간은 훨씬 지연되게 되였다. 이 일을 놓고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느끼는바는 실로 컸다.

기술인재들을 키워내자. 바로 여기에 생산이 활성화되고 공장이 비약하는 길이 있다.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이 펼쳐졌다.

그 일단으로 먼저 수십명의 로동자들을 대학에 보내자는 문제가 토의되였다. 공장의 대다수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에서 한두명도 아니고 수십명이나 되는 인원을 뚝 떼여 대학공부를 시킨다는것은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니였던것이다.

그러는 일군들에게 초급당일군은 말하였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끄는 식으로는 언제 가도 공장이 일어설수 없습니다. 자체의 기술인재들을 키워내는데 공장이 부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합시다.》

이렇게 되여 한날한시에 수십명의 종업원들이 조군실원산공업대학 학생이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실천에서 그 생활력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우선 일하면서 배우는 로동자들속에서 이룩되는 자그마한 기술혁신성과도 크게 내세워주었다.

식료작업반 로동자 고성철동무가 강정휘기공정에서 손로동을 없애는 새로운 지구를 창안하였을 때였다.

물론 요란한 발명은 아니였지만 당조직에서는 그의 소박한 창안을 귀중히 여기였다. 종업원들의 모임에서 소개도 해주고 영예게시판에 그의 사진을 크게 내붙이도록 하였다.

이것은 종업원들 특히 한날한시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당조직의 믿음에 기술혁신성과로 보답하려는 자각과 함께 남보다 앞서 했다는 승벽심이 더한층 높아졌다. 그럴수록 초급당조직에서는 그들속에서 나오는 기술혁신안들이 비록 사소한것일지라도 적극 지지해주고 제때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초급당조직에서는 로동자대학생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는 사업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 맺힌 문제들을 제때에 헤아려 풀어주었으며 주저앉을세라 친부모의 심정으로 힘을 주고 이끌어주었다. 그 과정에 공장에서는 놀랄만한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수입에 의존하던 쇠그물벨트의 제작, 진동관식파자선별기와 고속도원료분쇄기창안 등 수많은 창의고안 및 새 기술혁신안들이 도입되여 공장의 모든 설비들을 국산화하게 되였다.

최근년간 이 단위가 당당히 소리치며 일떠설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인재육성사업을 공장의 오늘뿐아니라 먼 앞날의 발전까지 결정짓는 사활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품을 들인데 그 비결이 있다.

본사기자 윤명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집체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북창은하피복공장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새 제품개발에 깃든 헌신적복무정신

함흥영예군인자동화기구공장에서

함흥영예군인자동화기구공장은 해마다 지표별인민경제계획을 11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는 단위이다.

지금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공기음이온발생기와 태양빛전지자동충전기와 같은 새 제품들은 가격이 눅으면서도 질이 높은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이 성과는 군사복무시절처럼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인민생활향상에 한가지라도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복무정신이 안아온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제품마다에 열렬한 애국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질좋은 생산물과 건설물을 만들어낼수 있습니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공장일군인 김영일동무로부터 새 제품들을 개발하던 과정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지난해 2월 공장의 한 사무실에서는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생산성과로 빛내이는것과 함께 우리 공장제품이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는 새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새 제품개발문제가 나오자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공장의 기술력량도 약하고 파산수가 영예군인인 조건에서 맡겨진 지표별계획이나 앞당겨 수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이때 지배인 오헌동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물론 생산계획수행도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시대가 바라고 인민이 요구하는 제품들, 국산화된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는것이다. 새 제품개발과정이 종업원들이 혁명의 꽃, 애국의 꽃을 더 활짝 피워나가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여 새 제품개발문제가 결의목표에 반영되게 되였다. 일군들은 전자공학에 조예가 깊은 리일호동무를 비롯한 영예군인들과 기술자들을 망라하여 새 제품개발조를 무었다.

새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서적들과 자재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군들이 밤이 맑도록 뛰고 또 뛰였다.

서로의 집체적지혜와 창발적의견들이 합쳐지는 속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새 제품개발지표들이 선정되였다. 공장일군들은 첫 전투로 기술준비실 실장 김영철동무가 제기한 공기음이온발생기와 태양빛전지자동충전기 개발제작사업을 전개하였다. 기술문헌자료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새 제품개발조의 성원들은 수입산에 비해 생산원가를 훨씬 낮추면서도 질적지표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우리 식의 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고야말았다.

그러나 제작단계에 들어가 적지 않은 자금을 들여 만든 시제품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군 하였다. 그때마다 오헌, 려용철, 홍성호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은 개발조성원들이 주저앉을세라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기어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배짱을 가다듬으며 김영철, 최수철, 정미화동무를 비롯한 개발조성원들은 실패에서 교훈과 방도를 찾으며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공무작업반원들도 생산이 바쁜 속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연구사업에 필요한 지구장비제작을 도와주었다. 일군들은 연구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음이온측정장치도 마련해주었다.

마침내 이들은 지난해 200일전투기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공기음이온발생기와 태양빛전지자동충전기의 개발생산에 성공하고야말았다.

이 나날 병사시절처럼 언제나 혁명적군인정신을 가슴속에 안고 분발한다면 불가능이란 없다는것을 공장의 일군들과 영예군인들은 더욱 깊이 새겨안았다.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새 제품개발목표를 더욱 높이 세운 공장에서는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현행생산을 다그치면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성능높은 제품개발성과를 부단히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영민

양어기지로 전변된 무계호

어랑군에서

어랑군 음에서 해변가를 따라 수십리정도 가면 무계호가 있다. 먼 옛날 화산활동에 의하여 분출된 현무암이 흘러내려 골짜기들을 막고 어랑천에 의하여 운반된 모래가 만어구에 쌓여 형성되였다는 무계호가 종합적인 온수성양어기지로, 인민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전변되였다.

경치아름다운 무계호기슭에는 양어못과 알깨우기실, 먹이가공실, 배수탕크, 뽐프장 등 온수성어류를 대량적으로 기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그윽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종어장이 일떠섰다.

무계호에는 그물우리양어장도 꾸려졌다.

무계호기슭에는 인민들이 문화휴식의 하루를 즐겁게 보낼수 있게 정각이며 휴식터, 동물조각들, 봉사기지들도 꾸려져 있다.

얼마전 어랑종어사업소에서는 호수에 많은 새끼물고기와 참게를 놓아주었다.

이번에 놓아준 기념어, 잉어, 붕어, 초어는 온수성어류로서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다.

군인민위원회일군의 말에 의하면 군에서는 앞으로 종어장에서 키운 새끼물고기를 군안의 양어기지들에 공급하면서 무계호에서 많은 물고기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러개의 산들이 종어장의 세면을 병풍처럼 둘러싸고있어 바람, 공기, 온도 등 새끼물고기들이 성장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호수에는 온수성어류와 참게가 자라는데 좋은 먹이원천이 또한 많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양어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북방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랑군에 위치한 장연호양어장을 찾으시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양어에 계속 큰 힘을 넣는다면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소원을 머지않은 기간에 풀어드릴수 있다고 하시면서 양어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광범히 벌리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해주시였다.

양어를 대대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군의 일군들은 온수성어류가 서식하는데 유리한 무계호를 종합적인 양어기지로 전변시킬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협의회를 열고 종어장과 그물우리양어장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능력있는 일군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우수한 청년들로 청년돌격대를 무었다.

일군들은 방대한 공사장에 맞게 단계별목표를 바로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방법론있게 해나갔다.

군당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은 전투현장에 나가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과 능숙한 전개력으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일군들은 기술집단을 발동하여 알깨우기실에 종합적인 무인조종체계를 확립하게 하는 한편 전문기관과의 련계밑에 설계를 과학적이고 실리주의원칙에서 진행하게 하였다.

서해수산연구소의 연구사들이 이들을 적극 도와주었다.

군에서는 종어장건설과 함께 종업원들의 살림집과 정각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갔다.

청년돌격대원들은 공사 첫시작부터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산중턱을 깎아내고 암반을 꺼내면서 수만㎥의 토량을 한달 남짓한 기간에 처리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몇달사이에 무계호기슭에 현대적인 종어장이 훌륭하게 건설되고 산기슭에는 아담한 살림집들이 줄지어 일떠섰다.

그물우리양어장이 꾸려지고 종어장앞에는 정각과 휴식터가 맺들어지게 일떠서 무계호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그리하여 온수성어류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서식하던 무계호가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물고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집약적으로 키우는 종합적인 온수성양어기지로 전변되게 되였다.

특파기자 리은남

백절불굴의 신념으로 석탄산을 쌓아가는 정신력의 강자들

사리원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의 투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지난 4월 13일 사리원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은 년간계획한수의 테프를 앞당겨 끊었다.

환성이나 요란한 축하는 없었다. 긍지높은 추억도, 나누고싶은 이야기도 많았을 그 시각 신들메를 더 힘껏 조여매고 새 출발진지에 또다시 자신들을 조용히 세운 우리의 미더운 주인공들!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위훈에 자신들을 비추어보며 그들은 련속공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5월 23일현재 년간 석탄생산계획의 138%계선을 돌파하였다. 탄광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쌓아가는 석탄생산실적도 귀중하다. 하지만 그 수자에 비할수 없이 크고 고귀한것은 바로 이들이 만리마시대 조선로동계급의 정신력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또 하나의 빛나는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는것이다.

강원도정신창조자들처럼!

새해 정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한자리에 모여앉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거둔 승리를 더 큰 승리에로 이어가기 위한 새 전투목표를 내세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광을 현지지도하신 때로부터 71돐이 되는 1월 13일까지 1월 석탄생산계획을 완수한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까지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완수한다. …

탄광의 불리한 생산조건에 대하여 그리고 지난해 이들이 어떤 간고한 격전을 치르며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187%로 넘쳐 수행하였는가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힘에 부친 일인가를 상상할수 있을것이다.

현재의 탄밭들에만 의거하여 그 전투목표를 수행한다는것은 불가능하였다.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점령하자면 결정적으로 새 탄밭을 조성해야 했다.

탄광에서는 즉시 로천 3호구역에 대한 정정탐사를 하여 새 탄밭을 찾아냈다. 그 매장량이면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승리의 돌파구가 열린것은 아니였다. 로천 3호구역은 단층구간이여서 갱정작업을 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 구역에 상당한 량의 물이 있을것이라는 탐사결과가 모두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봉락위험과의 싸움, 물과의 격전!

이 모든것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 시각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눈앞에 불굴의 군상으로 어려오는 모습들이 있었다.

강원도정신창조자들, 과연 그들이 조건이 좋아서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원산군민발전소를 일떠세웠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목숨 바쳐서라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일념안고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발파도 콩크리트타입도 하며 한치한치 불길굴을 뚫고 자력자강의 성벽마냥 억척의 언제도 쌓아올린 그들이 아니였던가.

물이 솟구치면 한몸이 그대로 양수기가 되고 붕락위험이 조성되면 한몸이 그대로 동발이 되여서라도 기어이 증산의 돌파구를 열자!

혁신갱, 청년갱의 탄부들만이 아니라 비생산부문 종업원들까지 이런 결사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로천 3호구역으로 달려나갔다.

갱정작업이 진행되게 될 많은 개소들에 붉은기와 전투속보판, 구호판들이 전개되였고 곳곳에서 용솟음치는 불을 꺼내기 위해 양수기들이 쉬임없이 가동하였다. 갱정수는 종전의 1.5배, 그 격전장마다에서 탄광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결사전을 벌리였다.

어느 전투현장에나 일군들이 있었다.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며 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벌리고 부족되는 자재들도 앞질러 보장하는 지배인 김학철, 초급당위원장 김승호동무들의 이신작칙은 말없이 울리는 《나를 따라 앞으로!》의 돌격구령이였다.

탄광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전력이 부족하면 발동발전기를 돌려 양수동력을 보장하였으며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는 속에서도 갱정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면 거세찬 불길이 곳곳에서 타오른 전투장에 진정 낮은 있어도 밤은 없었다.

땡세는 실천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광을 현지지도하신 1월 13일까지 1월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전투목표를 앞당겨 2월 26일에는 상반년계획을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물러서도 되는 전호란 없다

어느 탄부가 말했던가. 우리가 위치한 전투장은 사회주의조국존엄사수의 전호이라고.

그 말이 어느새 나래돋쳐 전투장의 속보판마다에는 《나의 일터는 나의 전호!》, 《물러서도 되는 전호란 없다!》는 글발들이 나붙었다.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이 과연 어떤 신념과 의지로 가슴끓이며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냈는가에 대한 대답이 전호, 바로 이 말에 비껴있다.

온 탄광이 석탄증산으로 부글부글 끓던 어느날 혁신갱 탄부들이 위치한 어느 한 작업구간에서는 예상치 않았던 정황이 발생하였다. 갱도에 짐이 실려 여러대의 동발이 찌어지고 3m의 구간이 붕청 내려앉았던것이다. 언제 또 다른 위협이 닥쳐들지 누구도 알수 없는 그 시각 《모두 물러서라!》라고 추상같이 외치며 붕락구간을 향해 달려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1중대장 장성률동무와 당세포위원장 리용헌동무였다.

《안됩니다. 위험합니다.》

《이걸 놓소. 조건이 어렵다고 전투장을 버리겠는가? 여기도 전선이요, 전선!》

초급일군들의 뒤를 따라 중대의 전투원들은 댕호마냥 달려갔다. 이들은 손에 동발과 곡괭이를 억세게 틀어쥐고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이들이 걸려 있는 전호를 가리고도 살충살균력이 강한 농약을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후 과학자들과의 련계밑에 원료를 선택하고 그 생산에 달라붙었다.

일군들은 농약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농약분조를 조직하고 교반기를 비롯한 농약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여러곳에 나가 원료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갔다.

어려가지 애로와 난관이 있었지만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탐구와 실천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고심어린 노력끝에 마침내 살충살균력이 강한 농약을 만들게 되였다.

자체의 힘으로 만든 이 농약은 효능이 높았다. 이곳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종전의 농약으로 첫 분무를 하면 살충살균력이 20~30%밖에 안되였지만 이 농약을 사용하면 단번에 살충살균력을 100% 보장할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농약은 종전의 농약보다 지속기일이 더 길었다.

여기서 힘을 얻은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농업연구원과 평양천연향료연구소의 연구사들과의 련계밑에 현이어 천연나노분산제와 농약첨가제, 영양살균제까지 자체로 만들어 농약의 국산화비중을 종전보다 훨씬 높이였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시기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올해의 기어이 과일풍년을 안아오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평양과수농장에서

병해충구제이자 과일증산

평양과수농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병해충구제에 힘을 넣어 좋은 과일작황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과수업에서 병해충을 구제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열매가 많이 달려도 병해충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때문에 농장에서는 지난 시기 병해충구제를 과일증산의 중요한 방도로 보고 농약보장에 많은 품을 들이면서 해마다 과일나무약뿌리기를 12회이상 진행하여 좋은 작황을 마련하군 하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이것으로 만족할수 없었다.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과일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자면 수입에 의존하던 농약을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생산하여야 하였다. 일군들은 농약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사상적인 문제로 보고 여기에 두팔걷고 나섰다.

우선 병해충구제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약부터 자체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주요 병해충을 구제하는데 필요한 농약생산의 일부 원료들을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병해충구제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군들은 이 농약의 화학적조성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과정에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를 가지고도 살충살균력이 강한 농약을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후 과학자들과의 련계밑에 원료를 선택하고 그 생산에 달라붙었다.

일군들은 농약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농약분조를 조직하고 교반기를 비롯한 농약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여러곳에 나가 원료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갔다.

어려가지 애로와 난관이 있었지만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탐구와 실천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고심어린 노력끝에 마침내 살충살균력이 강한 농약을 만들게 되였다.

자체의 힘으로 만든 이 농약은 효능이 높았다. 이곳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종전의 농약으로 첫 분무를 하면 살충살균력이 20~30%밖에 안되였지만 이 농약을 사용하면 단번에 살충살균력을 100% 보장할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농약은 종전의 농약보다 지속기일이 더 길었다.

여기서 힘을 얻은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농업연구원과 평양천연향료연구소의 연구사들과의 련계밑에 현이어 천연나노분산제와 농약첨가제, 영양살균제까지 자체로 만들어 농약의 국산화비중을 종전보다 훨씬 높이였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시기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올해의 기어이 과일풍년을 안아오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애국풀》을 널리 퍼쳐가는 미더운 과학자들

농업연구원 농업생물학연구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룡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여야 합니다.》

《애국풀》을 널리 퍼치라는것은 당정책적요구이다. 이것을 깊이 명심한 농업연구원 농업생물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조직배양에 의한 모생산에서 큰걸음을 내짚었다. 올해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그 생산량을 또다시 늘일수 있는 좋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결실이 아니다.

사실 그들이 이 연구과제를 처음 맡아안았을 때는 우려감도 없지 않았었다. 감자나 다른 식물체들의 조직배양은 수없이 해왔지만 《애국풀》과 관련해서는 초행길이였고 참고할만 한 과학기술자료도 없었던것이였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은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론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립장에서 그 수행을 위한 전투조직을 면밀하게 해나갔다.

조직배양연구실의 연구사들로 강력한 력량이 편성되였고 맡겨진 연구과제를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결속하기 위한 불꽃튀는 탐구의 낮과 밤이 흘렀다.

헐치 않은 과제였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겹치고 실패가 거듭될수록 이들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백배해나갔다. 그리하여 끝끝내 조직배양에 의한 모생산에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제일 난문제의 하나였던 《애국풀》의 체내에 기생하는 미생물을 제거할수 있는 정확한 과학기술적지표들이 얻어졌고 조직배양에 필요한 무균개체가 마련되였다.

더 큰 승리를 이룩할 일념안고 마음의 신들메를 바싹 조인 이들은 조직배양의 방법으로 얻어낸 모를 토양에서 번식시킬수 있는 방법을 련이어 완성시켰다.

이 나날 당조직에서는 부족되는 배양용기도 제때에 해결해주고 사소한 생활상불편도 없도록 늘 념려해주는 등 연구조성원들의 연구과제수행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나섰다.

당조직의 이런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방조가 있어 올해에는 토양에 옮겨심은 조직배양모의 사름률을 지난해보다 5% 정도 더 높일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될수 있었다.

《애국풀》을 널리 퍼치려는 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말보다 뚜렷한 헌신적실천으로 받들어온 연구소의 일군들과 미더운 과학자들.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높은 과학기술성과들을 안고 들어설 일념안고 또다시 분발해나선 이들은 오늘도 《애국풀》모증식과 관련한 연구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및 사진 리영학

모내는기계의 성능을 개선하여

대동군농기계작업소에서

대동군농기계작업소에서 모내는기계들의 성능을 개선하여 모내기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그리하여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지난 시기보다 로력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모내기의 질을 높이고 알곡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게 되였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에서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고 농업생산을 빨리 늘이자고 하여도 기계화를 하여야 합니다.》

모내기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는데서 모내는기계의 성능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작업소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농사에서 농기계는 무장장비와 같다는 관점에서 모내는기계에 빈포기방지기를 설치하고 일부 부족점들을 퇴치하여 모내기의 질과 속도를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지난해 농기계작업소에서는 금정협동농장의 어느 한 작업반에서 모내는기계가 가동할 때 일부 빈포기가 생기군 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시험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빈포기방지기를 제작하여 모내는기계들에 설치하여 빈포기가 생기는 현상을 없애는데 성공하였다.

이 경험에 기초하여 농기계작업소에서는 군안의 협동농장들에 있는 모내는기계들에 빈포기방지기를 제작하여 설치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작업소에서는 많은 모내는기계들에 빈포기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에서 이 사업에 기술자, 기능공력량을 집중하였다. 기술력량이 그른한 농장들에는 설계도면을 내려보내여 자체로 설치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여 거의 모든 모내는기계들에 빈포기방지기가 설치되였다. 따라서 모내기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게 되였으며 모보식로력이 지난 시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였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된다.

원래 이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시일이 급한것만큼 올해에는 20~30대의 모내는기계들에 빈포기방지기를 설치하여 농장들에 1~2대씩 보내주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내기전으로 거의 모든 모내는기계들의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모내는기계를 20~30대정도 개조하자는 의견과 모내기전으로 무조건 개조하자는 의견, 이것은 농사에서 농기계를 무장장비와 같이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떨쳐나서지만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보는 사람은 주어진 조건에 포로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참은 효혼이 클수록 분발심이 강해지는 법이다. 일군들은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일군들은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기술자, 기능공들을 불러일으켜 짧은 기간에 거의 모든 모내는기계들의 성능을 개선하자는 결론을 내리였다.

다음날부터 장정남, 최창린, 김천국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모두가 강원도정신으로 투쟁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배짱을 가지고 떨쳐나섰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모내는기계의 성능개선에 알곡증수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알려주면서 모두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모내는기계개조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떠밀어주었다.

작업소에서는 우선 뜨락또르수리작업반과 농기계수리작업반, 가공작업반, 4.15기술혁신돌격대의 기술자, 기능공들의 기본력량을 빈포기방지기제작에 돌리였다.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전시생산을 보장한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힘찬 투쟁을 벌린 결과 짧은 기간에 군안의 농장들에 있는 거의 모든 모내는기계들의 성능이 개선되였다. 그리하여 적은 로력으로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게 되였으며 정보당 알곡생산을 지난 시기보다 더 늘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모내는기계로 모를 낼 때 일부 모가 손상되던 현상을 없애기 위한 전투를 벌릴 때에도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농업전선의 병기창을 지켜섰다는 자각을 가지고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농기계는 무장장비와 같다는 관점을 가지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를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할 때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6월 상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사대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6월 상순에 우리 나라는 북부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들의 영향을 자주 받을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전반적지역에서 순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대부분지역에서 평년정도이겠으나 황해남북도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약간 적겠다.

논벼농사에서는 벼모내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논써레치기를 비롯한 모내기선행공정들을 앞세우고 살초제치기를 규정대로 하여 싹터나오는 김을 말끔히 잡아야 한다.

기계화비중을 높여 모내기를 적기에 끝내며 파종된 모를 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모판에서 모선대수를 정확히 장악하고 모내기적기일나이에 이르면 지체없이 모를 내야 한다.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토양종류별특성에 맞게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소식재배를 하는 경우 깊은층비료주기에 알맞게 두줄모아심기를 하거나 4포기모아심기를 할수 있으며 심정에 맞게 여러가지 재배형식을 받아들일수 있다.

논물을 2~3㎝로 얕게 대고 모를 내며 모꽂는 깊이를 모종류에 따라 잘 선택하여야 한다. 모내기전 뇨소비료주기를 잘하여 모살이가 잘되게 하여야 한다.

모살이시기 논물관리와 생육전반기비료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모종류에 따라 물관리를 짜고 들어 벼모가 잠기거나 말라죽는 현상을 없애고 모살이가 빨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생육전반기 질소비료주는 량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소식재배조건에서 아지비료도 깊은층비료주기를 하면 질소비료의 효과를 높여 소출을 훨씬 높일수 있다.

모내는 기간이라고 하여 모판관리를 소홀히 하는 현상을 없애고 마지막모가 나갈 때까지 모를 튼튼히 길러내야 한다.

모를 제때에 내지 못하여 모판에서 한계일나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잎자르기를 하여야 한다. 센 바람피해나 살초제피해를 받았던 모판, 병에 걸렸던 모판들에는 질소비료나 린안비료를 덧비료로 주고 여러가지 활성제들을 분무해주어 모생육이 정상상태로 된 다음 모내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벼모판과 모내기한 논에서 병해충구제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물논써레친 논들에서 바람에 물린 짚검불들을 건져내여 땅속 20㎝이상깊이에 묻어주어야 한다. 벼모판에서 아침과 저녁시간에 빗살식후리채를 리용하여 해충을 잡는것과 함께 논두렁마다에 벼짚묶을 또는 가마니쪼각을 놓아두었다가 아침마다 거기에 모여드는 엄지벌레를 잡아야 한다.

강냉이농사에서는 평당 포기수를 보장하고 가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가물로 빈포기가 많이 생긴 포전에서 빨리 빈포기메꾸기를 하여 평당 포기수를 보장하며 가물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관수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5월 중순에 내린 비로 강냉이밭에 김이 많이 나오고있으므로 김매기와 후치질을 다그쳐야 한다. 감자와 점재배하는 강냉이밭에서 감자와 강냉이줄사이를 후치로 잘 째주어 물과 영양성분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덧비료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강냉이밭에서 어린 모시기에 지하해충을 비롯한 병해충피해를 받지 않도록 포전예찰과 구제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

제20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였던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이 떠나갔다

제20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였던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이 26일과 27일 비행기와 렬차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철령에 새겨가는 애국의 자욱

대동강구역 문수3동 23인민반 백옥녀로인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눈시울이 달아오른다.

위대한 장군님의 심장속에 끓어번지던 조국수호, 인민사랑의 열과 정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것인가를 말없이 새겨주는 철령!

하다면 우리 인민은 철령이란 그 무릎앞에서 무엇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77살의 년로한 몸으로 명예돌격대원이 되여 해마다 철령으로 오르는 대동강구역 문수3동 23인민반 백옥녀로인의 모습에서 가슴후덥게 깨닫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백옥녀로인의 집에서는 618전설돌격대원들에게 보내줄 지원물자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손을 다그치던 서정림동무가 《총정의 전투기록장》을 펼치는 어머니에게 감회깊은 어조로 말했다.

《이번까지 하면 53번째로 618전설돌격대에 지원물자를 보내는군요.》

박희영동무가 어머니의 말을 밀막으며 말참견을 했다.

《그전까지 다 합하면 1 381번째의 지원물자지요 뭐. 그렇지요, 할머니.》

딸과 손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백옥녀로인의 눈앞에 지나온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감격과 기쁨을 안고 《총정의 전투기록장》을 만들며 남편은 말했었다.

《수령복, 최고사령관복을 떠나 순간도 생각할수 없는 오늘이 아니요. 그러니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이 길을 갑시다.》

해방전 재령군의 어느 한 소작농의 집에서는 땔방둥이가 태여났다. 하지만 일제에게 나라는 물론 말과 글, 이름마저도 빼앗겼던 수난의 그 세월 부모들은 그들에게 우리 이름을 달아줄수 없었다. 그나마 딸 하나는 3살도 못되여 굶어죽지 않으면 안되였고 다른 딸은 너무도 살기 어려워 남의 집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다음에야 부모들은 눈물속에 팔리웠던 딸을 되찾게 되였고 인민이 주인된 세상에서 옥처럼 깨끗이 살라고 백옥녀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조국의 귀중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절감한 그였기에 조국보위초소로 용약 달려나갔으며 가정을 이룬 후에는 당과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며 맡은 임무들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총정의 전투기록장》을 만든 때로부터 몇해후 백옥녀로인의 남편은 림종을 앞두고 안해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였다.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은 신념과 의리로 따라야 하오. 적으나마 조국에 바친 우리의 넋을 자식들이 피줄처럼 이어받을수 있게 번함없이 굳세게 살아주오.》

남편의 그 말을 가슴속에 또박또박 새기며 백옥녀로인은 애국의 한길만을 억세게 걸어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관심하시는 수도시민들의 땔감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용석탄운반을 스스로 맡아나섰으며 어느 한 협동농장에 달려나가 하루도 빠짐없이 농사일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장과 청년영웅도로건설장, 희천발전소건설장, 창전거리건설장, 고산과수종합농장건설장을 비롯하여 중요대상건설장들과 조국보위초소들에 백옥녀로인의 애국의 발자욱들이 무수히 찍혀졌다.

그 나날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는 영예를 지니였다.

618전설돌격대 평양시려단 대동강구역대대의 돌격대원명단에는 백옥녀로인의 이름이 올라있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안고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았던 백옥녀로인은 평양시려단의 지휘관들을 찾아갔다.

《저를 돌격대에 받아주십시오.》

그의 심정이 리해되였지만 지휘관들은 선뜻 대답을 줄수가 없었다.

《제 나이에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저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돌격대원들과 숨결을 같이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선로동당원의 본분을 다할수 있게 돌격대원명단에 저의 이름도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되여 백옥녀로인은 희천발전소건설에도 고산과수종합농장건설에도 명예돌격대원으로써 깨끗한 량심과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게 되였다.

어느해 봄 지원물자를 마련해가지고 고산과수종합농장건설장을 찾아갔던 그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령도자욱이 력력히 어려있는 철령으로 올랐다. 돌격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자동차를 타고가라고 하였을 때 그는 머리를 저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우리 장군님께서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넘나드시던 철령인데 어떻게 자동차를 타고 편안히 오르겠습니까.》

철령에는 철쭉꽃이 한창이였다. 령길에 피여난 철쭉꽃잎을 쓸어보는 백옥녀로인의 눈가에 후더운것이 고여올랐다.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철령졸업증을 받을수 없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백옥녀로인의 가슴속에서 굳은 맹세가 불길처럼 타번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신념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이 철령길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애국의 한길을 곧바로만 달려가겠습니다. 이 길에서 당과 조국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를 떳떳이 총화받겠습니다.》

백옥녀로인은 얼마후이면 아흔번째로 철령에 오르게 된다.

이제는 지원사업을 그만큼 하였으면 여생을 편히 보내여도 누가 탓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년로한 나이에 철령길에 오르는 어머니의 신상을 걱정하는 자식들에게 백옥녀로인은 말하군 한다.

《가다가 쓰러지면 기여서라도 올라야 하고 내가 가다 못 가면 너희들이 대를 이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하는것이 철령길이다. 철령길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 우리의 명줄이 이어지는 길이다.》

백옥녀로인이 걷는 철령길에는 이런 혁명적인생관, 굳센 신념과 애국의 의지가 진하게 깔려있다.

어찌 백옥녀로인뿐이랴.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도 뜻도 숨결도 하나가 되여 최후승리의 령마루로 줄달음쳐가는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백두의 행군길과 더불어 철령길이 떨어있다.

인생의 리정표를 철령길로 정한 명예돌격대원 백옥녀로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애국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앞으로도 멈춤없이 끝까지 갈것이다.

본사기자 조경철

이런 훌륭한 교육제도에서 우리가 산다

한 교육일군의 수기집을 펼치며

올해는 우리 교육일군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뜻깊은 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40돐이 되는 올해에 이 땅에서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전면적실시라는 또 하나의 력사적인 사변이 터져올랐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교육중시의 력사를 깊은 감회속에 돌이켜보는 사람들속에는 오랜 교육일군인 채광일동무도 있다.

40여년을 교육사업에 바쳐온 그의 한생이야말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온넋으로 체험하고 그렇듯 훌륭한 교육제도를 빛내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온 불같은 생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지금 우리는 그가 자기의 그처럼 류다른 체험과 추억들을 기록해놓은 수기집을 마주하고 있다. 글줄마다, 페지마다에서 년대와 세기를 이어 계속되여온 우리 당의 후대사랑, 교육중시의 화폭이 체험자의 목소리로 울리고있다.

그것은 이 땅의 복받은 후대들이, 행복한 인민이 미처 다 헤아릴수 없는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또 하나의 찬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입니다.》

그의 수기집의 첫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나는 나라가 해방되기 한해전 평안북도 어느 섬마을의 빈농가정에서 태여났다. 대대로 빈농의 가정이다보니 가문에는 학교를 다녀본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어머니는 글을 배우는것이 소원이였지만 학교에 갈수가 없어 모래판에서 글을 몇자 익혔다고 한다. 그런 집안의 6남매의 맏이로 태여난 나도 아마 우리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지 않았더라면 빈농의 자식으로, 까막눈으로 살았을것이다.》

이것은 해방전 우리 나라의 실태그대로였다. 나라가 해방되던 1945년 8월 당시 인구의 80%에 달하는 문맹자속에 그의 가족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새 삶의 빛발은 가난에 찌들대로 찌든 그의 집 창가에도 따사롭게 비쳐들었다. 그처럼 소원하던 제땅이 차례진것도 꿈같은 일이였지만 그의 어머니가 제일 기뻐한것은 나라의 은덕으로 빈농의 자식들도 공부할수 있게 된것이였다. 자식들모두가 학교에 갈수 있게 된것이 너무도 꿈만 같아 자진하여 녀맹사업에 앞장섰고 건국사업에 헌신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채광일동무는 말하였다.

사람의 한생에는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일들이 있다. 그것이 때로 그 인간의 한생을 규정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기도 한다. 채광일동무에게 있어서 배움의 첫 시절은 나라가 전쟁의 불구름을 헤치던 준엄한 시기와 함께 흘러갔다. 산도 불타고 마을도 불타던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다. 그런데 그처럼 처절한 운명의 판가리시각에도 하루도 끊기지 않은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배움의 종소리였다.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들이 적비행기의 폭격을 받지 않게 분산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었다. 교원들이 학생들을 나누어 맡아가지고 인가들을 교실로 삼아 수업을 하였다. 또 기억되는것은 두박하기는 하지만 그 어려운 나날에도 나라에서 공급하는 연필과 학습장들을 어김없이 맡아안던 일이다. 10살도 안되는 철부지소년은 그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 준엄한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교육사업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도록 해주시였고 전선으로 향하는 로탄을 실은 자동차들보다 먼저 아이들의 학용품이며 교과서들을 실은 자동차들을 련성하여 떠나보내도록 하시였다는 경이적인 사실에 대해 미처 알수 없었다.

하지만 전쟁의 불구름속에서도 소학교시절을 중단없이 보내고 나라가 허리띠를 조여매던 전후 어렵던 시기 중학교과정안을 마치였으며 이 땅에 천리마가 나래치던 격동적인 때에 온 마을의 축복속에 고급중학교로 향하던 일들은 그의 뇌리속에 오늘도 생생히 새겨져있다.

이 고마운 제도가 아니라면?!…철이 들수록 채광일동무는 가슴속에 차오르는 고마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래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하였을 때에는 대학에로의 길을 마다하고 혁명의 군복을 입었다. 귀중한 이 제도, 은혜로운 품을 목숨바쳐 지키는 병사가 되고 싶었던것이다.

군사복무를 마친 채광일동무가 대학으로 떠나던 날 신의주시 하단리의 작은 마을은 명절처럼 설레였다. 우리 마을에 첫 대학생이 나왔다고 모두가 기뻐하며 대학생교복을 입은 채광일동무를 바래워주러 멀리 동구밖까지 따라섰던 이웃들이였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공부를 잘해야 한다.》

눈물속에 하는 어머니의 그 당부는 채광일동무의 마음속에 불타는 맹세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 땅의 수많은 학생들처럼 철따라 교복과 학용품을 받아안으며 대학공부를 하였다. 하비라는 말조차 모르는 그에게 나라에서는 김일성장학금까지 안겨주었다. 그때의 심정에 대해 채광일동무는 수기에 이렇게 썼다.

《지금도 나는 때없이 생각해본다. 만일 자본주의사회에서 태여났더라면 나와 같은 농민의 자식이 어떻게 대학공부를 하였겠는가. 과연 누가 나에게 그처럼 엄청난 학비를 대주었겠는가. 나를 낳은것은 어머니였지만 품에 안아 키워주고 공부시켜준것은 우리 당, 우리 사회주의제도였다.》

이것이 채광일동무가 대학을 졸업한 후 첫걸음을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길에 내짚게 된 동기였다. 그는 이처럼 고마운 교육제도를 받드는 교육일군이 되고싶었던것이다.

그때로부터 4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은 채광일동무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온넋과 폐부로 더욱 깊이 절감한 날과 달들이였다.

그가 집필한 소론문들가운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11년제의무교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통교육사업》 등과 같이 우리 나라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해설론증한 글들이 많다. 이것은 책자의 갈피에서가 아니라 그가 현실에서 직접 보고 체험한 격동적인 사실들에 대한 생동한 기록이다.

채광일동무가 교육일군의 첫 발걸음을 내짚은 1975년 우리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의 완전실시라는 격동적인 사변이 펼쳐졌다. 그는 한없는 격정을 안고 우리 당이 펼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의 놀라운 화폭들을 목격하였다.

학생들은 도시에 살건 농촌에 살건, 남자이건 녀자이건 판계없이 다 하나의 의무교육제계에 망라되여 차별없는 교육을 받으며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학교가 있고 학교갈 나이가 되면 도시에 있거나 산간벽지에 있거나 외진 섬에 살거나 판계없이 학교에 받아들여 무료로 공부시키는 원칙, 모든 어린이들의 100%취학률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공부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하는 사실 등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들은 어느것이라 할것없이 드넓은 이 세상의 그 어느 하늘아래서도 찾아볼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것이였다.

채광일동무는 이처럼 훌륭한 교육제도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심장을 불태웠고 그처럼 우월한 교육제도를 온넋을 다해 빛내여갈 마음속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교육위원회 일군으로 사업하는 바쁜 속에서도 그는 짬만 생기면 붓을 들어 소론문들을 썼다.

《교원양성사업의 강화와 교원들의 역할》, 《외국어교육과 지능계발》, 《조기어린이교육과 실천에 대하여》, 《섬마을, 산골마을 아동들을 위한 분교교육》, 《21세기를 지향하는 고등교육》…

이것은 자기의 지식과 재능이 나라의 교육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그의 애끓한 진정이였고 불같은 열정이였다.

오랜 교육일군인 채광일동무에게는 때로 여러 국제회의들에 참가하여 우리 나라 교육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가 차례지군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가슴속에 넘치는 격정을 불덩이처럼 터치군 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이르는 곳마다에 학교가 고르롭게 분포되여있으며 도시에는 주택구획마다, 농촌에는 리마다에 학교들이 세워져 학생들에게 교육을 주고있다. 특히 평토의 거의 80%가 산으로 되여있고 섬들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을 고려하여 산간지역과 섬들에 천수백개의 분교들을 내오고 운영하고있는데 그중에는 불과 3-4명 지어 단 한명의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분교도 있다.》

이것은 채광일동무가 어느 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여 발언한 내용중의 일부이다. 많은 회의 참가자들이 믿기 어려워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것을 알고는 저마다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부러움과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런 때의 긍지가 얼마나 컸던지 채광일동무는 시인이 아니지만 즉흥시까지 읊어 만장의 박수갈채를 받군 하였다.

실력있고 열정적인 조선의 교육일군, 이것이 채광일동무에 대해 알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 교육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가였다.

채광일동무는 여러해전부터 나라의 교육사업발전을 위해 취해진 조치에 따라 조직된 조선교육후원기금 회장으로 사업하고있다.

30대의 젊은 시절에 교육일군대렬에 들어선 그의 머리에도 어느덧 흰서리가 짙게 내리였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삶과 투쟁의 활력소로 새겨안은 그의 심장은 로쇠를 모른다.

채광일동무와 함께 일하는 조선교육후원기금의 일군들은 우리 회장의 정열은 한계를 가늠할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는 실제로 나라의 교육사업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일이라면 멀고 험한 길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열정을 아끼지 않는다.

그에게는 즐겨 들어다보는 류다른 사진첩이 있다. 거기에는 그가 조선교육후원기금의 일군들과 함께 찍어온 남다른 삶의 자취들이 긍지높이 새겨져있다.

범동군과 온파군, 재령군과 안악군, 배천군과 봉천군, 동림군과 양덕군…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멀고 외진 산골, 이 나라 마지막마을에까지 따사롭게 비쳐들게 하려는 불타는 일념으로 바쳐온 한 교육일군의 성실한 애국의 땀방울들이 멋지게 일떠선 교사들과 훌륭히 갖추어진 교육시설들에 력력히 어리여있다.

과연 무엇이 이 나라의 평범한 교육일군을 수십년세월 식을줄 모르는 열정과 백옥같이 깨끗한 량심으로 나라의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는 참된 인간으로 아름다운 삶을 빛내이게 한것인가.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여 원아들을 사랑의 한품에 뜨겁게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세상에 이 땅의 후대들처럼 복받은 미래는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그대로 이 나라 아이들의 운명의 태양이 되시고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신 우리 원수님, 내 심장의 마지막박동이 다할 때까지 그 위대한 사랑을 전해가는 하나의 혈살이 되리라.》

이것은 몇년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신 소식에 접하고 채광일동무가 흥분을 금치 못하며 쓴 수기의 한 대목이다. 그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소식에 접했을 때에도, 지난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일떠선 평양초등학원을 찾으시여 원아들에게 따사로운 사랑을 안겨주신 혁명활동소식이 전해진 날에도 그렇듯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에 대한 매혹과 흠모로 심장을 불태웠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되여 지난 수년간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정숙사범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과 신의주영예군인학원, 고려성균관, 원산육아원과 애육원, 평양초등학원과 중등학원을 비롯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새겨진 수많은 교육단위들과 학원들을 발이 닳도록 찾고찾으며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해 아낌없는 열정과 노력을 바쳐올수 있었는가에 대해 굳이 묻지 않았다. 이 세상 제일로 후대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심장의 매혹, 이 세상 가장 우월하고 훌륭한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제도에 대한 열렬한 긍지와 자부, 이것이 채광일동무에게 진할줄 모르는 힘과 열정을 안겨준 원천이였다.

하기에 그는 지난해 9월 전당, 전군, 전민을 복무피해복구전투에로 부르는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이 발표되였을 때에도 년로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으로 남먼저 달려갔다. 그때 채광일동무가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멀고 험한 피해현장들을 직접 밟으며 건설자들과 교육일군들에게 피해지역의 교육시설들을 하루빨리 복구하여 배움의 종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자고 절절히 호소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가는 그 시각 채광일동무가 얼마나 모진 육체적고통을 이겨내고있었는가를 사람들은 후날 그가 대수술을 받게 되였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되였다고 한다.

교육사업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며 후대들을 위한 길에 바치는 삶을 값높이 빛내여주는 우리 당은 나라의 교육사업발전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온 채광일동무를 김일성훈장수훈자로 내세워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의 초침소리가 낮이나 밤이나 열정을 북돋아주고 그의 집에 가보처럼 정히 모셔져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표창장이 당의 믿음에 더 높은 사업성과로 보답할 충정의 일념을 더해준다.

채광일동무는 오늘도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꽃피우는 길에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머리에는 흰서리를 얹고 육체는 로쇠하였어도 위대한 사랑의 빛발을 안은 그의 심장은 청춘의 열정과 활력으로 고동친다.

온혜론 품속에 나서 자라나 나 하나 행복을 바라고 살라는, 마지막 한방울 다할 때까지 높뛰는 고동을 더해주리라는 평가사의 구절처럼 그는 값높은 생을 주고 아름다운 추억과 인생의 보람을 준 고마운 품, 귀중한 이 제도를 위해 마지막 심장의 박동까지 다 바칠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 제일 우월하고 훌륭한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받들고 빛내이는 길에 한줄기 억센 밀뿌리로 사는것이 그의 인생의 보람이고 긍지이며 삶의 목적이기때문이다.

본사기자 강 진 형

화초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 마련

국가과학원 평양화초연구소에서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인민들의 미적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있으며 꽃에 대한 수요도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최근 국가과학원 평양화초연구소에서는 튤립과 복수선화를 비롯한 여러 화초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그 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과학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노래에도 백화만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온 나라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튤립과 복수선화는 나리과의 여러해살이화초들이다.

튤립과 복수선화는 품종도 많고 화단화초 및 꺾음꽃으로서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높다.

튤립의 원산지는 뛰르끼예이며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많이 재배하여왔다.

꽃이 피는 기간은 10~15일이다. 꽃이 피는것과 함께 비늘줄기가 2~4개로 갈라진다.

번식은 씨와 비늘줄기로 시키는데 씨앗을 심으면 3~5년 지어는 10년 자라야 꽃이 피므로 대체로 비늘줄기로 번식시킨다. 비늘줄기가 2㎝이상 되는것을 심으면 다음해에 꽃이 핀다.

복수선화는 튤립과 생태학적특성이 거의나 같다.

주체100(2011)년 3월 평양화초연구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화초연구기지가 마련된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튤립을 비롯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을 널리 퍼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주체101(2012)년 9월 평양화초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미적요구가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좋은 품종의 꽃들을 많이 피우며 세계적으로 이름난 꽃종자들을 들어다가 우리 나라의 조건에 맞게 풍토순화시키고 꽃피우기를 과학화, 공업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력창, 량학숙, 리영수동무를 비롯한 평양화초연구소의 일군들은 그 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우리 나라에서 튤립과 복수선화는 계절적특성으로 하여 대량재배하기 힘든것으로 되여있었다.

실장 방헌임, 리명하, 교수 박사 김영철동무를 비롯한 연구소안의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년동안 고심어린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며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밀려왔다.

이 나날에 이들은 비늘줄기를 잠재우는데 적합한 온도를 찾아내고 우리 실정에 맞는 비늘줄기자래우기기술을 확립하여 화초들을 대량재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를 마련하게 되였다.

하여 올해 태양절을 맞으며 수만포기의 튤립과 복수선화를 피워 금수산태양궁전 광장꽃원을 더 잘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또한 화초연구 및 생산기지답게 수많은 화단화초들을 생산하여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려명거리를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온 이곳 일군들과 연구사, 종업원들의 불타는 충정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평양화초연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조국땅 그 어디에나 온갖 꽃이 만발하게 할 드높은 일념을 안고 과학연구사업과 화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주 령 봉

중앙동물원이 새로 개건된 후 많은 동물들이 새끼를 쳤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이 마련되여있습니다.》

세계적수준의 문화생활거점으로 훌륭히 개건된 중앙동물원에서 동물들이 많은 새끼를 쳐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동물원일군들과 관리공들의 말에 의하면 보통 동물들은 환경이 바뀌면 일정한 시기까지 번식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새로 개건된 중앙동물원에는 해당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방불케 하는 동물사들과 놀이터들이 훌륭하게 꾸려져있어 근 1년동안 많은 동물들이 알을 다두어 새끼를 쳤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7월에 준공식이 진행된 때로부터 올해 4월까지 중앙동물원에서 반달곰과 애완용말, 난쟁이말, 사자 들원숭이를 비롯한 동물들이 친 새끼들은 80여종에 860여마리에 달하며 그가운데는 선물동물들이 낳은 10여종에 30여마리의 새끼들도 있다.

주체68(1979)년 12월 당시 마다가스까르대통령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정을 담아 선물로 올린 고양이원숭이를 비롯하여 선물동물들인 사자들원숭이, 불수염 검은얼굴원숭이들이 많은 새끼를 낳았으며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3(2014)년 1월 15일에 낳은 새끼는 어미품에서 떨어져 순치단계를 거치고있는데 이제 곧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게 된다.

지금 중앙동물원의 일군들과 기술자, 관리공들은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개건된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동물들에 대한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번식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중앙동물원은 앞으로도 절세위인들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전하며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크게 이바지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성 룡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우시군 가하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이 대중체육활동을 통하여 튼튼히 다진 몸과 마음으로 농사일을 잘해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농장에서는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대중체육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농장원들속에 깊이 인식시키면서 그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명절날과 휴식일이면 농장에서는 국방체육과 배구, 롱구 등 여러가지 종목의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을 조직하였다.

일군들부터가 이 사업에 적극 앞장섰다. 일군들이 직접 체육경기에 참가하여 농장원들과 어울려 승부를 겨루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니 체육열의는 더욱 높아지고 농장에는 혁명적열정과 랑만이 차넘쳤다.

농장에서는 체육사업을 통하여 더욱 앙양된 대중의 열의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최 항 룡

산업미술도안과 글씨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업미술에서는 글씨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산업미술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사명을 수행한다.

우리의 산업미술을 주체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글씨체의 조형화, 다양화를 실현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산업미술에서 글씨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다양한 글씨체를 산업미술도안창작에 리용하기 위한 질서를 바로세우고 우리 식의 글씨체원화개발을 위한 전람회, 현상응모사업을 조직하여 우리 글씨체를 조형적으로 더욱 완성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일반적으로 글씨체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한 체모를 갖추어 표본화된 글자의 모양새를 말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글자를 만들어쓰기 시작한 년대는 각이하지만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글자를 더 아름답게 쓰려고 계속 노력하여왔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정보전달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였던 글자의 모양새는 사람들의 미적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발전되였고 글씨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단위들도 나오게 되였다.

오늘날 글씨체는 해당 시대를 반영하고 그 시대의 문화수준정도를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로까지 되고있다.

우리의 산업미술도안들에는 젊음으로 약동하고 세기를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끊임없이 비약하는 우리 시대의 벅찬 모습이 비낀 글씨체들이 다양하게 창작활용되고있다.

현실에 도입된 각종 마크도안, 간판도안, 광고 및 상표도안들에 활용된 글씨체는 다 자기 고유의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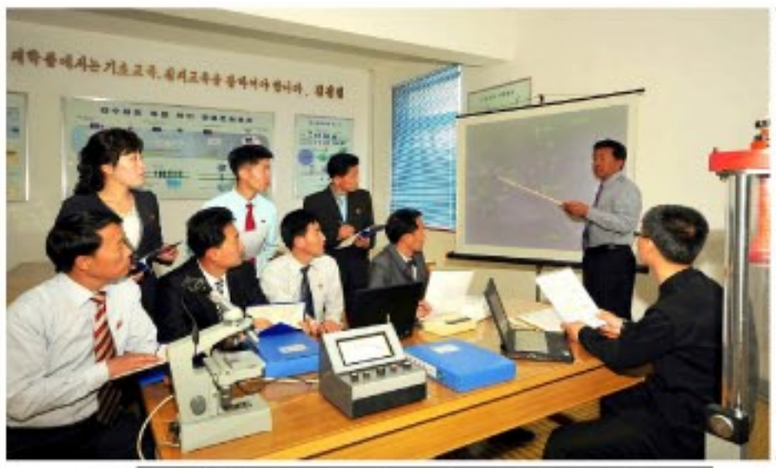
해당 주제적내용을 상징적이면서도 집약적으로 그리고 간결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마크도안에 반영된 글씨체는 대체로 글자들에 변형을 심하게 주지 않았다. 대기념비적창조물들에 형상된 각종 마크들을 보면 천리마제, 청봉제, 광명제와 같은 정적이고 단순한 획모양새의 글씨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년간에는 흘림기법의 붓글씨체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글자의 변형을 심하게 주지 않았다.

봉사기관 간판도안들의 글씨체는 해당 단위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도시미화에 어울리게 여러가지 장식기법들을 적용함으로써 대체로 글자들에 변형이 많다. 실례로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일떠선 만수대거리, 창전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의 봉사기관 간판들에는 파장과 함축은 물론이고 동심적인 형상수법까지 활용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면서도 친근감을 자아내고있다.

상표도안들에 활용되는 글씨체는 대체로 해당 상품의 특성과 그 리용방법을 사람들 누구나가 잘 알수 있게 하면서도 호기심을 끌수 있게 여러가지 붓글씨체로 형상된것이 많다.

산업미술창작가들은 풍부한 조형예술적안목을 가지고 각종 산업미술도안에 반영되는 글씨체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세계적인 명도안, 명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문명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 리 혜 련



송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체육열기를 고조시키자면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송구는 문지기를 포함한 7명의 선수를 한 팀으로 하는 두 팀이 손으로 공을 몰거나 주고받으면서 상대편의 득점문에 던져넣어 얻은 점수로 승부를 가르는 구기종목이다.

사람들의 체력을 고르롭고도 굳세게 발달시켜주며 용감성과 대담성, 집단주의정신 등을 키워주는 송구는 먼 옛날부터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진행되던 손으로 공을 다루면서 하는 운동과 여러가지 형태의 유희들에서 유래되였다.

송구경기에는 매 팀에서 문지기를 포함한 7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전, 후반 각각 30분씩 진행한다. 전반전이 끝난 후 15분간 휴식한다.

송구경기장의 길이는 40m, 너비는 20m이다.

송구경기장에서 6m선을 문구역선이라고 하며 9m점선을 자유던지기선, 7m선을 7m벌던지넣기선이라고 한다.

송구득점문의 높이는 2m, 너비는 3m이다. 남자경기에서는 둘레가 58~60㎝, 질량이 425~475g인 공을, 녀자경기에서는 둘레가 54~56㎝, 질량이 325~375g인 공을 사용한다.

경기 전과정에 한 팀에서 3회까지 타임아우트(1분)를 요구할수 있다.

송구경기에서는 상대편선수를 밀거나 잡기, 치기와 같은 행동을 하였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엄중성정도에 따라 경고, 2분퇴장, 실격과 같은 처벌을 적용한다.

송구경기에서 선수는 공을 3초이상 잡거나 바닥에 대고있을수 없으며 공을 잡고 세걸음까지 걸을수 있다.

경기과정에 선수는 공을 몰다가 잡은 다음 다시 몰수 없다.

선수교대는 심판원의 승인이 없이 임의의 시각에 진행할수 있다.

문구역안에는 문지기만이 들어갈수 있으며 다른 선수가 문구역안에 들어가는 경우 반칙으로 된다.

1946년에 국제송구련맹이 창설되였다. 우리 나라 송구협회는 1974년에 국제송구련맹에 가입하였다.

송구협회 서기장 김 광 수

천연기념물—장연조선소

조선소는 우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다른 소품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종이다. 우리 나라 기후풍토조건에 잘 순응되였으며 병에도 잘 견딘다.

조선소는 성질이 온순하고 랭리하며 기르기 쉽고 무림능력이 매우 높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먼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소와 말에 짐을 싣거나 타기도 하였으며 그 후 소가 힘이 세며 성질이 유순하고 추위를 잘 이겨내는것으로 하여 무림짐승으로서 농사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으로,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여겨왔다고 한다.

조선소는 털색이 진하고 연한 차이는 있으나 밤색이 기본이다.

조선소에는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장연조선소도 있다.

장연조선소를 기르는 곳은 장연군 금사리, 광천리일대이다.

이 일대는 토양이 비옥하고 누기가 적당하여 식물들이 자라는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여있다.

장연조선소는 몸집이 우람하고 네다리가 튼튼하여 건장한감을 주며 균형이 잡혀보인다. 특히 몸체의 앞부분이 잘 발달되고 어깨가 높으며 뒤다리사이가 넓은것이 특징이다.

장연조선소의 몸질량은 수컷이 500㎏, 암컷이 400㎏정도이며 온몸이 누런밤색털로 덮여있다.

장연조선소는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소품종의 하나로 평가되고있으며 이 품종의 기본산지인 금사리, 광천리일대에서 그 순종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본사기자

대학에서—본사기자 리진명 적음

향상사업에 힘을 돌고있다·정성의학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자질

누구든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배치를 허용한다면 민심의 버림과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성명

최근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핵전쟁광기가 극도에 달하고있는 속에 남조선에서 《싸드》배치철회를 위한 각계층의 투쟁이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다.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진보련대, 참여련대를 비롯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남조선에 엄청난 대재앙을 몰아올 전쟁피물을 끌어들인 역도년과 보수패당의 치떨리는 매국반역행위를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싸드》철거를 최우선적인 적폐청산과제로 내세우고 전지역적인 투쟁을 벌려나가기 위해 총궐기해나서고있으며 그리스도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카톨릭교 등 5개 종교단체들도 《싸드철회를 위한 종교인평화련대》를 결성하고 그에 적극 합세하고있다.

《싸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싸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단체들과 현지주민들은 《초불투쟁》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싸드철회이다. 》, 《그것은 정부의 주권과 민주주의회복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될것이다. 》, 《싸드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고 현 집권당국에 강력히 들이대고있다.

여기에 우리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최종시험발사의 련이은 대성공으로 남조선내부에서 《싸드로는 북의 미싸일을 막을수 없다. 》는 《싸드무용론》까지 확대되면서 각계층의 투쟁은 더욱 열기를 띠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싸드》배치합의는 침략의 원흉인 미국의 강도적요구와 괴뢰보수패당의 추악한 대미굴종의 산물로서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 주변나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은 《싸드》배치를 합리화해보려고 온갖 교활한 술수를 다 쓰다 못해 나중에는 미국과 작당하여 도적물건을 집안에 끌어들이듯 환현장비반입을 강행하였다.

이것으로써 괴뢰보수패당은 《북핵》을 칠고 《안보불안》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며 여론을 오도해온 기만적정체와 더러운 잔평을 무지하기 위해서라면 상전의 비위를 맞추며 민족을 핵전쟁제물로 섬겨바치는것도 서슴지 않는 천하여적무리로서의 흉악한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박근혜의 탄핵과 보수《정권》의 비참한 종말은 미국의 가장 추악한 전쟁사환군, 친미보수패당에 대한 력사와 민심의 응당한 징벌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매거리들과 바람따라 돛을 다는 정치간상배들이 미국과 합의된 《싸드》배치를 철회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국론분렬》을 가져올수 있다고 떠들어대고 새로 집권한 남조선당국 역시 《신중한 해결》이요, 《국회동의절차》요 하면서 각계층의 《싸드》배치철회요구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있는것이다.

《싸드》배치냐 아니면 철거냐, 이것은 외세추종과 민족중시립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며 여기에서는 그 어떤 타협이나 절충이란 있을수 없다.

남조선 각계층이 《싸드문제처리는 현 정부가 내드는 〈당당한 외교〉를 검증하는 첫 시험대로 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민족의 존엄과 안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반영하여 침략적인 《싸드》배치문제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있는 남조선집권세력에게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으로 경종을 울린다.

1. 《싸드》배치는 남녘땅을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전초기지, 군사기지로 영원히 내맡기는 매국배족적망동이다.

지금 미국은 《북의 핵위협》이라는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방대한 침략무력과 핵전쟁장비들을 들이밀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생억지이고 궤변이다.

미국이 잠재적적수들의 핵공격을 막기 위해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기회를 노려왔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미국의 이러한 해묵은 흉계를 앞장에서 비호두둔하고 실행해온 역적무리들이 바로 괴뢰보수패당이다.

남조선당국은 《싸드》배치가 세계제패를 노리는 미국의 핵전쟁물방아간에 물을 대주고 침략의 발판을 짚아주는 천하의 쓸개빠진 역적짓이라는것을 똑바로 알고 립장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싸드》배치는 조선반도를 대국들의 핵전쟁마당으로 만들고 전대미문의 대참화를 불러오는 천추에 용납 못할 역적행위이다.

남조선이 극동최대의 위험천만한 핵전쟁화약고로 전락되어 세계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게 된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각한것은 《싸드》배치로 하여 오늘 남조선이 단순히 우려와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주변핵강국들의 1차적인 타격목표로 되였다는데 있다.

이제 미국의 무분별한 광기로 핵전쟁이 발발하면 전대미문의 끔찍한 대참화를 제일먼저 뒤집어쓸것은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만일 미국에 추종하여 《싸드》배치를 끝끝내 허용한다면 그것은 《을사오적》을 무색케 할 천하역적죄로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온 민족이 엄한 눈길로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잊지 말고 지체없이 《싸드》철거용단을 내려야 한다.

3. 《싸드》배치는 침략자의 힘을 빌어 민족의 존엄과 안전, 번영을 천만년 담보해줄 정의의 핵보검을 없애려는 반민족적범죄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지난 세기 초엽 자기를 지킬 변변한 총대가 없어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쓰라린 교훈이 있다.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오늘과 같은 강력한 핵억제력을 다져놓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에서는 핵전쟁이 열두번도 더 일어났을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고 세인의 공정한 평가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해줄 정의의 핵보검에 대해 환영하지는 못할망정 침략자의 《싸드》를 끌어들여 그것을 없애보겠다고 헤덤벼친 보수패당의 책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망동이고 무서운 반민족적죄악으로 되는가를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

《싸드》배치는 박근혜패당이 남긴 가장 심각한 적폐의 하나이며 그 철회는 남조선 초불민심의 강력한 요구이고 거역할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다.

그가 누구든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배치를 허용한다면 보수역적패당처럼 민심의 버림과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5월 27일
평 양

외세의존병을 털어버려야 한다

현 남조선집권자가 《특사외교》의 간판밑에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세계의 여러 지역에 측근들을 련이어 파견하며 외세에 《북핵문제》해결을 청탁하는 놀음을 계속 벌려놓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선임자의 실패와 가련한 운명에서 아직 교훈을 찾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력사의 교훈을 무시하면 오유를 반복하기마련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북핵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공조를 모의하고있는것은 민족을 등지고 외세를 분주히 찾아다니며 《북핵공조》를 추구하다가 국제사회의 수모와 랭대만 당하고 종당에는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한 박근혜패당의 전철을 밟는 수치스러운 망동이다.

남조선당국은 박근혜패당의 어리석은 외세의존책동과 그것이 초래한 파국적후과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한다.

알려진바와 같이 박근혜역도는 집권 전기간 동족이 내미는 화해와 단합의 손길은 뿌리치고 련일나게 외세를 찾아다니며 반공화국대결공조를 애걸하군 하였다. 그야말로 입만 벌리면 《북핵위협》타령뿐이였고 외세의 옷자락만 붙들면 《북핵공조》를 강화해달라는 억겨운 청탁뿐이였다.

꿈꾸기 전에 해몽이라고 역적패당은 그런 창피스러운 못난짓을 하고서도 매번 그 무슨 《공동립장확인》이니, 《대북압박강화의 계기》니 하고 자화자찬하며 외세로부터 큰 비계덩이나 받은듯이 망신스럽게 놀아대군 하였다.

괴뢰보수패당이 특대형추문사건으로 저들의 운명이 당장 끝장날 판인데도 외세의존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반공화국대결공조에 광분하였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 미친 나발질과 분별없는 대결망동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 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최강의 핵보유국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질겁한 얼간망동이들의 히스테리적발작이였다.

존엄과 주견라고는 꼬물만큼도 없이 외세에 빌붙으며 동족을 해치랄라고 구걸과 청탁으로 날과 밤을 보낸 이런 쓸개빠진 매국노들때문에 북남관계가 파괴되였으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극도로 고조되였다.

가관은 이 가련한 고자쟁이들이 여기저기 싸다니며 《대북제재압박》을 목이 쉴 지경으로 짖어대고 온갖 요사를 떨며 비럭질하였지만 차례진것은 하대와 조소뿐이였다.

구멍을 바가며 말죽을 깎는다는데 역적패당은 대세도 모르고 무작정 외세만 쳐다보며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리다가 저들자신이 막다른 신세에 처하고 종당에는 파멸의 함정에 빠지고말았다.

동족이 아니라 외세를 중시하고 그와 공조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북남관계에 백해무익하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우리 나라가 민족분렬이라는 쓰라린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게 된것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저들의 패권적리익을 실현하는데 환장해 날뛴 외세때문이였다. 지금도 외세는 조선반도의 현 대결국면을 통해 리득을 보려 하고있다.

이런 외세를 믿고 그와 공조하는 길로 나간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대립에서 벗어날수 없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도 해소될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외세의존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따르고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를 실현하는데 북남관계개선과 평화, 통일의 길이 있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의존으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북핵문제》를 내들고 《특사외교》놀음에 매달리고있지만 받고있는 대접이란 제 앉을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채 감수해야 하는 외교적천시와 랭대가 아닌가. 사대와 굴종때문에 빠져든 《외교참사》의 수렁판을 외세의존의 막대기를 붙잡고 벗어나보려는것은 실로 오산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온갖 화난의 근원인 외세의존병을 털어버릴 때가 되였다.

남조선당국은 《특사외교》의 간판을 내걸고 외세의 문을 두드릴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동족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야 한다.

허 영 민

괴뢰군부호전광들이

무인정찰기를 우리측 령공 깊숙이 침범시키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 감행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되게 괴뢰군부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행위가 갈수록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5월 26일 7시 46분부터 20시 40분사이에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은 무인정찰기 《헤론》 1대를 서해열점수역과 그 주변지역 상공에서 행동시키면서 무려 4차에 걸쳐 우리측 령공에 깊숙이 침범시키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괴뢰군부호전광들의 이러한 군사적도발행위는 미제가 판도에 배치되어있던 대형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와 조종사 등 100여명을 새풍을 피한다는 미명밑에 우리 나라와 가까운 일본 요꼬다기지에 전진배치한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다는데 엄중성이 있다.

핵전쟁살인장비들과 최신정찰수단들을 련이어 조선반도주변에 끌어들여 일촉즉발의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는 미국상전의 히세에 힘을 얻은 괴뢰군부호전광들이 제 죽을지 모르고 로골적으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면서 설쳐대고있는것이다.

며칠전에는 우리가 《미상의 비행체》를 날려보냈다고 법석 떠들면서 무턱대고 경고방송을 불어대고 수백발의 기관총탄까지 란사해댄 괴뢰군부호전광들이 이번에는 무인정찰기를 최대로 예민한 서해열점수역과 그 주변지역의 우리측 령공에 깊숙이 들이미는 모험적인 군사적도발을 감행한것은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북남관계개선요구를 차단하고 미국상전의 대조선침략책동에 편승하여 어떻게 하나 북침도화선에 불을 달아보려는 간악한 흉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정세의 긴장을 계단식으로 격화시키고있는 괴뢰군부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은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보복대응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서해열점수역을 침략자, 호전광들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우리 군대의 의지는 추호도 흐림이 없다.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은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지난 5월 상순 유엔고문반대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일본남조선사이의 《합의》를 재검토할것을 권고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제2차 세계대전기간의 성노예제도의 희생자라고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2015년말의 일본남조선《합의》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하였다.

문제는 일본정부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나서며 그 무슨 《반론문서》라는것을 제출한것이다.

일본정부는 유엔고문반대위원회의 보고서가 일본군《위안부》들을 성노예라고 규정한데 대해 《사실과 어긋나며 부적절》하다고 항의하면서 일본남조선《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앙탈을 부리였다.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전체 성노예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일본정부의 《반론문서》제출놀음을 단호히 규탄한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관권과 군권을 동원하여 녀성들을 강제로 끌어다 본인의 의사를 짓밟고 노예적인 성봉사를 강요했다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제 이름자와 모국어는 물론 죽을 권리마저 빼앗긴채 독방에 갇히워 일본군인들의 야만적인 학대에 오직 복종만 해야 했던 그들을 노예라고 부른것은 다름아닌 구일본군인들자신이였다.

더우기 《최종적》이요, 《불가역적》이요 하는 그 《합의》라는것도 일본이 남조선당국자들을 얼려 얼렁뚱땅 만들어낸 협잡합의, 피해자들의 요구와 립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열치기합의로서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각국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관련단체들, 국제사회의 반대와 배격을 받고있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세계여론을 공정하게 반영한 국제기구의 보고서까지 비난하며 저들의 과거범죄행위를 변호하고 미화하는것은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혹심한 모독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범죄에 대한 평가와 규정은 범죄자가 하는것이 아니다.

범죄자에게는 오직 정의와 법률이 내린 심판에 따라 자기를 반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밖에 없다.

일본당국은 무분별한 력사외곡, 과거범죄의 책임회피야말로 무지절한 행위, 자멸행위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이제라도 성근한 자세를 가지고 과거범죄에 대한 법적, 도덕적의무를 다하는데 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5월 27일
평 양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이 일본주재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은 15일 도꾜에 있는 총련중앙회관에서 빼레이라 에르난데스 일본주재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허종만의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피델 까스뜨로동지와 함께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이 조선과 꾸바사이의 우호친선의 력사에 아로새겨져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꾸바가 미국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빼레이라 에르난데스특명전권대사는 꾸바와 조선이 형제국가로서 력사적으로 우호친선관계를 공고발전시켜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꾸바혁명이래 미국과 맞서 싸워온 력사를 가지고있는 꾸바인민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응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꾸바와 조선사이의 련대성은 변함이 없을것이며 꾸바인민은 항상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시위투쟁 전개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싸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3일 서울의 청와대앞에서 《싸드》배치중지를 요구하는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그는 김천과 성주의 주민들이 《싸드》배치중지를 위해 《대통령》이 성주를 찾아 대책할것을 요구하고있다는 내용의 선전물을 들고있었다.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의 성원들도 이 투쟁에 합세하였다.

그들은 《대통령》이 《싸드》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공사장비들이 계속 성주골프장으로 들어가고있다고 까밝혔다.

그들은 《싸드》배치에 대한 재검토에 앞서 하루빨리 공사부터 중지시킬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역 《정권》이 남긴 온갖 사회적악폐들을 청산할것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단장

세계보건기구총회 제70차 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단장인 강하국보건상이 24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세계보건기구총회 제70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하였다.

단장은 지난해 《우리의 세계를 개조하자: 2030년까지의 지속개발》안건에 뒤이어 이번에 《지속개발시대에 보다 훌륭한 보건세계를 구축하자》라는 총적주제로 토의를 하게 된것을 매우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난 1년간 세계적으로 지속개발목표 특히 모성 및 어린이사망률감소, 전염성 및 비전염성질병 대처, 필수의약품보장과 보건일군증대 등 보건관련 목표달성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지속개발의정에 제시된 목표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정책에 부합된다고 보고 지지함에 이어 이미 오래전에 수립된 완전한 무상치료제를 중추로 하는 국가보건제도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목표리행을 힘있게 추진하여왔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보건부문앞에 병걸린물을 극력 낮추고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며 의학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의료봉사의 질과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 따라 보건부문에서는 2020년까지 평균수명을 늘이고 유아사망률과 임산모사망률을 결정적으로 줄이는 등 많은 보건지표들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울 큰 목표를 내세우고있다.

보건사업에서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은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미치게 하며 모든 보건시설들에서 환자들에 대한 정성을 최대한 발휘하는것이며 여기서도 중요하게는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것이다.

그 훌륭한 실례로서 지난해 나라의 북부지역 큰물피해복구전투에서 보건시설들과 락아소, 유치원들과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건설한것과 최근에 전국의 모든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들을 현대적으로 꾸린것 등을 들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직접적인 관심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류경안과종합병원과 보건산소공장과 같은 보건시설들이 새롭게 일떠서서 운영되고있다.

한편 전국에 뻗은 먼거리의료봉사망이 보다 기술적으로 완비되고 제약공장들이 개건현대화되였으며 의학교육과 재교육체계가 개선되고 특히 1차의료봉사계선 호담당의사들의 기술실무수준이 높아졌으며 접종과 구충활동의 질적수준도 보다 강화되였다.

지속개발목표에 제시된 보건분야 목표리행은 결코 보건분야만 진행할 사업이 아니며 모든 련관기관들과 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야 할 전국가적인 사업인것만큼 결핵과 비전염성질병방지활동, 담배통제활동 그리고 에볼라 및 지카비루스감염증과 같이 새롭게 류행되는 전염병의 류입을 막기 위한 활동을 비롯하여 많은 보건관계 문제들을 국가적으로 조정해나가고있다.

단장은 이 모든 활동들과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이 인민대중중심의 보건제도를 보다 굳건히 다지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속에서 자력자강의 힘으로 이룩된것으로 하여 보다 고귀하고 값비싼것이라는것을 긍지높이 선언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계적인 지속개발에 관한 2030년의정이 나온지도 2년이 흘렀지만 국제관계에서 주권국가들의 자주적발전을 저애하는 도전은 계속되고있다.

지속개발의정은 모든 국가들의 평토완정과 정치적독립을 철저히 존중하고 재부와 자연부원, 경제활동에 대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주권행사를 담보하며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배치되는 경제, 금융 및 무역조치들을 취하는것을 금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일방적인 기준과 관념으로 다른 나라들의 정치체제를 적대시하면서 정치, 군사, 경제적압력과 위협을 가하는 강권과 전횡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인류복리증진을 위하여 내세운 지속개발목표는 실현될수 없다.

지속개발의정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사회적불평등과 빈궁을 없애고 인간의 존엄과 창조적능력을 마음껏 발양하며 우리 세대뿐아니라 후대들의 유족한 생활을 담보하는 세계를 건설할것을 공약한 인류공동의 행동강령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개발의정에 제시된 보건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재앙거리이다. 》

이것은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미국과 메히꼬 및 카나다사이에 체결된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을 념두에 두고 한 소리이다. 략칭 나프타(NAFTA)라고 불리우는 이 협정은 1992년에 체결되고 1994년에 정식 발효되였다. 협정의 골자는 3개국간에 교류되는 모든 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것이다.

현재 이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미국과 메히꼬 및 카나다사이의 마찰과 대립이 심화되고있다.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초당파국회의원들과 만난 트럼프는 이 협정을 재협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운운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해 협정의 용어에 영어자모 F자를 첨부할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영어자모 F는 《공정하다》(Fair)는 뜻을 가진 단어의 첫 글자이다. 즉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을 오직 미국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협정으로 전환시키겠다는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그러한 의도가 실제 비전 압박을 메히꼬와 카나다에 련속 가하고있다. 이미 미국은 카나다산 목재와 우유에 제재관세를 부과한 상태이다. 또한 메히꼬에 전개되여있는 미국기업들이 철수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있는것과 함께 메히꼬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을러메고있다.

하지만 일은 결코 미국의 의도대로만 되지 않고있다.

메히꼬경제상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미국이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하는 순간 자기는 협상락에서 일어나 작별인사를 고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카나다는 미국이 자국산 상품들에 제재관세를 부과한데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대응책검토에 착수하였다. 그 내용을 본다면 카나다의 항을 경유하는 미국산 석탄의 출하를 금지시킨다는것이다. 미국산 석탄의 대부분이 카나다의 항을 경유해 수출되기때문이다.

미국의 독선적인 행동들은 오히려 해당 지역 나라들을 보다 폭넓은 무역협조의 길로 나아가도록 부채질해주는 격이 되고있다. 메히꼬정부는 이때까지 미국에 의존해온 자국의 경제정책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메히꼬정부는 미국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아메리카공동시장과의 통합을 강화하고 유럽통맹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고있다. 카나다 또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의 협조관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하다면 미국이 이번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 재협상놀음을 통해 노리는 진의도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4월말 세계 여러 나라들, 세계무역기구 등과 맺은 모든 무역협정들을 전면재검토할데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미상무성이 180일안에 미국내 일자리를 빼앗고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무역협정들을 조사한다는 내용의 이 행정명령을 실행하면 많은 나라들이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입게 된다.

결국 미국의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 재협상라령은 오직 미국의 리익만을 위해 복무하는 경제질서를 세우겠다는것이다.

앞으로 미국이 자국에 불리한 무역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미명하에 세계 곳곳에서 제2, 제3의 재협상놀음을 벌려놓을것은 불보듯 뻔하다. 정세분석가들은 앞으로 예견되는 첨예한 무역마찰들이 정치, 군사분야에서의 치렬한 대결로 번져갈수도 있다고 평하고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일관성이 없고 신용이 없으며 오만무례한 불량배국가인가를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끼고있다.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어제날 악수를 나누며 《친구》들과 맺은 협정을 휴지장으로 만드는것을 식은죽먹기로 여기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현재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트럼프행정부의 무역협정 재협상놀음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으며 경제적협조와 단결을 강화하고있다.

앞으로 자국의 리익만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미국은 국제적고립과 지탄을 면할수 없게 된다. 미국을 제쳐놓고 세계적범위에서 협조와 단결을 이룩해나가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더욱더 활발해질것이다.

본사기자 김 승 걸

오만무례한 불량배국가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

아시아의 서남부에 위치하고있는 아제르바이잔의 령토는 대부분 높은 산악지대와 초원지대로 이루어졌다.

아제르바이잔인민은 독특한 민족문화를 창조하며 발전시켜왔다.

특히 17~18세기에 창작된 시사시, 이 시기에 건설된 요새, 궁전 등은 이 나라의 가장 큰 문화유산으로, 아제르바이잔민족의 문화적특징을 대표하는것으로 간주되고있다.

이 모든것들은 오늘날 아제르바이잔인민의 커다란 긍지로 되고있다.

아제르바이잔에는 원유와 천연가스, 망간, 철, 연 등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여있다. 원유와 천연가스매장량은 세계적으로 앞선 자리를 차지한다.

오래전부터 아제르바이잔은 풍부한 자원을 밑천으로 하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해오고있다.

경제에서 원유와 천연가스채취 및 가공공업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원유와 천연가스생산이 국내총생산의 30%를 차지하고있다.

이 나라의 원유매장량은 90억bbl, 천연가스매장량은 약 2조 6 5 00억m³에 달한다.

해마다 평균 270억m³의 천연가스가 생산되고있으며 2025년까지 년간 천연가스생산량을 500억m³로 늘일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농업발전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감자, 포도, 목화 등이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세계적인 주단생산지이다. 주단은 이 나라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정부는 자원수출에 치우친 경제구조를 단계별로 대담하게 변화시킬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다.

지난해 3월 아제르바이잔대통령은 비원유부문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새로운 경제전략을 천명하였다.

이미 기계, 금속, 화학, 방직, 식료공업 등 여러 부문들에서 일정한 정도의 성과를 이룩한 아제르바이잔은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자립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대외적으로 불러들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이웃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중시하고있다.

오늘은 아제르바이잔국경절이다.

본사기자

ㄱ-71084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판매등록 및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